

1
2020

VOL. 283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크리스마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百年顧客



hotelfacilities



Borobudur Grand Ballroom



Rama Ballroom I



Shinta Ballroom II



Meeting Room 1 - V



Fitness Club



Driving Range



Garden Brasserie



Bunker Cafe



Coffee Shop



Business Center



Pool Bar



PUB



Swimming Pool



Restaurant



Sauna & Spa



Money Changer

Java Palace Hotel

Jl. Niaga Utara Kav. 1-2
Jababeka II

Cikarang - Jawa Barat
17530 Indonesia

reservation@palacejava.com

Telp: (62-21) 29281111

Fax: (62-21) 29287300

✉ : info@palace.co.id

Benefit

혜택

고주몽을 포함한 자바팔레스호텔 내 식음료 할인

- 15% 할인 주류 포함

자바팔레스호텔 스파

- 마사지 20% 할인

자바팔레스호텔 골프 연습장

- 일반 가격에서 30% 할인

자바팔레스호텔 웰니스, 사우나, 스파 시설

- 1년간 무료 이용

자바팔레스호텔 객실

- 무료 숙박권 3매 (주말, Superior Room, 조식 2인 포함)

- 숙박 50% 할인권 2매 (주말, All Room type)

- 숙박 20% 할인권 6매 (주중 포함, All Room type)

Seruni Coffee Shop

- 생일 당일 무료 생일 케익 제공 (사전 예약 필요)

Annual Fee
IDR. 4,500,000 nett

JOIN NOW

0001

privilege

Richard Chu Member 0157

*Pioneering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in West Madura Offshore
Since 1981*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 업체로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ODECO ENERGY

Talavera Office Park 10th fl. Jl. Letjen TB Simatupang No. 22-26
Jakarta 12430 T +62 21 2765 1559 E admin@kodeco.co



PT. DONG SAN HOLDING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MART하고 Speed한 제품생산으로 Delivery 납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재생으로 환경보전에 힘쓰고
인도네시아인들과 함께 하는 현지화로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물류 운송과 PROJECT CARGO 운송 전문업체
HANINDO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SINCE 1993)

업무 안내

- 수출입 화물 해상, 항공 운송
- 수출입 화물 통관 (EDI ON - LINE) 및 내륙 운송
- PROJECT CARGO 및 건설 장비 운송
- 특수 장비 국내외 운송
- LCT / BARGE TRANSPORTATION
- 해외 이주 화물 (이삿짐) 운송 및 통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CT Transportation



BARGE Transportation



COLUMN Transportation
(L X W X H @ 52.0 X 2.1 X 2.1 M)



REACTOR Transportation
(L X W X H @ 35.0 X 7.95 X 8.45 M)

Granadi Bldg 7th Fl. South Wing, Jl.HR.Rasuna Said Kav 8-9,
Jakarta 12950 Indonesia

E-mail : hanindo@hanindo.net

Website : www.hanindoexpress.com

Telp : (62 21) 2525-123, Fax : (62-21) 2520-551, 2520-556

HP : 081-848-5570 (Mr. CHO) Hp : 0811-816-0627 (Mr. SHIN)

항상 고객으로부터 믿음과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PT. BOSUNG INDONESIA

**CORRUGATED SHEET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INNER BOX**

<제품안내>
종이 골판지 생산
카톤박스
포장용 박스
종이 쇼핑백

**포장재 전문회사 보성인도네시아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amatan Pasar Kemis Tangerang Banten 15560,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021) 5935 1001 (hunting)
Fax. (021) 5935 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T. TAEWON INDONESIA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OFFSET PRINTING | PULP MOLD

Jl. Raya Industri Selatan 1, Blok LL-6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Cikarang Bekasi 17550
E-mail : sales@taewon.co.id Tel. (021) 8948 1234 Fax. (021)8984 1133/1134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Best Quality & Delivery



MACHINE CAPACITY

Factory 1

- LDPE extruder 8 sets, emboss roller 3 sets
- sealing machine 7 sets
- HDPE extruder 5 sets, emboss rolle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1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2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4 colour 2 sets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5 colour 1 set
- PP strapping band extruder 2 sets
- mixing machine 2 sets
- side seal machine 4 sets
- crusher machine 4 sets
- hanger machine 4 sets

Factory 2

- LDPE extruder 12 sets, emboss roller 5 sets
- sealing machine 10 sets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1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2 colour 4 sets
- flexo printing machine 2 colour 2 sets
- PP extruder 4 sets
- crusher machine 1 set
- side seal machine 5 sets
- hanger machine 5 sets
- mixing machine 2 sets
- roll bag machine 1 set
- HF PVC machine welding 5 sets
- corona treatment 3 sets
- slitting machine 1 set

PRODUCT

- polybag (LDPE, PP, HDPE), (5cm, 280cm width)
- all kinds of shopping bag 5 colours printing
- PVC bag
- garbage bag
- PP strapping band (PP band)
- OPP bag
- zipper bag
- emboss roll bag
- roll bag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MARKETING OFFICE

Kawasan Berikat Nusantara (KBN)
Jl. Sumatera Raya E-04, Cakung Cilincing Jakarta Utara
Telp : 62-21-440-3926 (hunting), fax : 62-21-440-3944

Email :

bhjang@indosat.net.id (Jang Bong Hee)
kenleej@gmail.com (Lee Jo Hun)



경주 동해바다 해돋이

contents

2020. 01. 통권 283호

- 09 인도네시아 라이프 No.1 <황유경>
- 10 2020 신년 연하장 <손인식>
- 12 신년사 <김창범, 박재한, 승은호, 송창근>
- 20 '한인100년사' 편찬위원의 새해인사
- 22 [신년시] 여명 앞에서 <김준규>
- 24 김문환논설위원 칼럼- 반일 폭동과 대망의 길
- 27 꽃청춘 프로젝트 1탄 <김승욱>
- 28 신성철칼럼
- 32 한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나(3) <조연숙>
- 34 기획탐방4. 개신교편 <이영미>
- 38 이코노미 인사이트 <황준규>
- 40 칼리만탄 한인회 총회
- 41 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이취임식
- 42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반란의 시대
- 46 뉴스브리핑 <자타르타 경제신문>
- 50 자카르타 맛집탐방 <주윤지>
- 52 행복에세이 <서미숙>
- 55 현장의 달인과 함께 하는 송년의 밤
- 56 JKS 소식
- 57 2019 한인청년회 & 옥타차세대 송년의 밤
- 58 나 바 수 <민선희>
- 62 [자유기고] 꼭 해야 하는 일 <김근수>
- 64 나무위에서 자유를 외치다 <인서연>
- 66 코린도 사회공헌재단, 장학금지원
- 67 A SYTAR IS BORN <편집국>
- 68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281) <이승민>
- 70 헤리티지 소식 <유세라>
- 72 외식인의 날
- 73 특별한 출판 기념회 및 북토크
- 74 우리동네 솜씨왕
- 77 Pancoran 사람들 No.13
- 78 생활정보

월간 한인뉴스 1 2020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김문환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수진, 이영미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삼월이의 #인도네시아 라이프 No.1

에어비엔비 즐겨보기



방학과 공휴일이 잦은 새해, 근교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는 꿀팁!

"아이들 겨울방학에 아빠들이 잠시 짬을 내어 연말 휴가를 다녀왔어요.

멀리 가지 않고 여러 가족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보고르로 행선지를 정했는데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힘들었어요. 이미 식상해진 호텔이나 리조트 대신 에어비엔비를 이용해 잡은 숙소가

여러 사람의 니즈(needs)를 만족시키는데 안성맞춤이었어요. 어린 아기부터 큰아이들까지

두루두루 즐길거리가 있어서 함께한 가족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여행이었어요."



놀이방



다이빙대까지 구비된 넓은 풀장



퍼팅 연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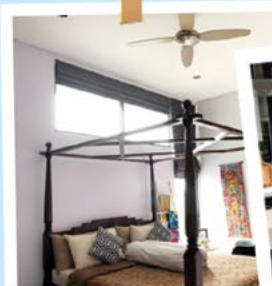
거실



신나게 뛸 수 있는 점프린



#보고르에 위치한
에어비엔비 숙소



침실



식기까지 구비된 완벽한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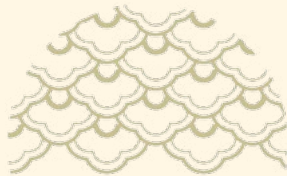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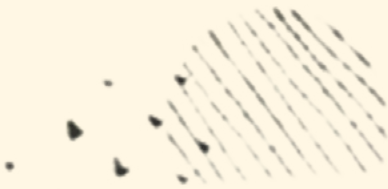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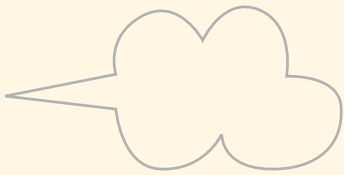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방, 방마다 준비되어 있는 엑스트라 베드,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관리인 등 지내는 동안 집주인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시기와 인원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게 변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확실한 조사를 한다면 색다른 경험과 합리적인 조건으로 신나는 여행이 가능해요. 유난히 연휴와 방학이 많은 인도네시아 라이프에 종종 단,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실때 에어비엔비를 이용해 다양한 맛의 여행을 즐겨보세요!

글: 황유경(버카시거주/ 삼월공작소)



대희망을 품고
 이 현실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

인도네시아 환인 백 년, 더불어 100년이었습니다.
함께 한 백 년이었습니다.

인생 100년의 의미를 묻는 말에 한 랍비께서는 “깨치고 이루어 혼돈의 강을 넘어서야 하는 공부의 장이다.” 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2020, 경자년 새해, 백 년의 도달이자 새로운 백 년의 시작입니다.
뛰어난 번식력으로 활황을 의미하는 흰쥐의 해와 맞물렸습니다.
흰쥐가 인간 신체 연구에 공로가 크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새겨지는 새해 아침입니다.

더불어, 또 함께 우리 모두의 소망을 이룰 수 있기를 빕니다.

2020년 새해 아침 산나루 처생 손인식 삼가



신년사



인도네시아 한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庚子)년 새해를 맞이하여 수마트라 북단에서 파푸아 남단까지 곳곳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한인 동포사회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웃음이 넘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2019년에는 국내외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어 동부 칼리만탄 신수도 개발 협력 MOU 서명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타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현대자동차 진출 투자협약이 체결되어 2021년 말부터 연산 25만대의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올해부터 공장 건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지난 9월 버스를 타고 5박 6일 동안 자카르타를 출발하여 짜르본, 브르브스, 솔로를 거쳐 수라바야까지 1,000km를 횡단하는 ‘뜨꼬 낭자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자바섬 곳곳에 한류를 홍보하는 공공외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4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출범한 조코위 대통령의 제 2기 행정부는 인적자원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내걸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20년은 최초의 한인인 장윤원 선생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자카르타에 첫발을 디딘지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에 대사관은 한인회 그리고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의미있는 ‘한인 이주 100주년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한인 이주 100주년 행사’를 계기로 우리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고, 한·인니간 “Maju Bersama”의 관계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대사로 부임한 2018년 첫 해 톰복 지진과 빨루 지진을 겪었고 지난 8월에는 자카르타 지진과 자바섬 대정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입니다. 재외국민보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입니다. 대사관은 한인 동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사관에서는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난 9월부터 안전문자공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동포분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발리 분관이 2020년 하반기 중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발리, 톰복 여행시 좀 더 안전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금년 4월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극 동참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는 쥐의 영민함과 근면함으로 우리 동포사회가 인도네시아에 더욱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과 직장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 김 창 범



신년사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가족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는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한인사회의 다양한 행사와 한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크고 작은 일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한인동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제 6대 한인회가 힘차게 출범하고, 화해와 협력, 소통, 공감이라는 대명제 아래 인도네시아한인회의 나아갈 바를 구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내다봅니다. 2020년은 우리 한인회도 목표를 위해 많은 땀과 정성을 기울이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1920년 9월 20일 장윤원 선생의 자와 땅 도착을 기점으로 한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10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는 한인역사서입니다. 한인회는 지난 100년간 인도네시아한인의 분야별 발자취를 총망라하여 한인동포들의 100년을 되돌아보는 ‘한인 100년사’ 출간을 계획하여 지난 해 7월부터 편찬위를 출범하고 수개월간 여러 채널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편찬위 집필진들에 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20일을 ‘한인의 날’ 로 정하여 기념식과 다양한 문화 공연, 전시, 체험 등으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의 축제의 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세상을 관통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가능성을 확대하고, 관찰하여 연결하는 우리의 성장 로드맵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소통과 공감 그리고 봉사하는 한인회 먼저 한인동포와 소통·공감하는 한인회, 봉사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모두의 역할이 있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네 삶에는 온기와 여유, 대화와 미담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신뢰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주는 아름다운 전통과 미덕을 쌓아왔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단결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인도네시아 한인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이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한인 동포 여러분!

한인회는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며 모든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혼란 가운데 타국에서의 더욱 세밀한 주의와 대처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인 동포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경자년 한해 되시고 동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마다 항상 기쁨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박재한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년 열두 달, 매일 열대기온 속에 살다 보니 시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옛그제 신년 인사를 한 것 같은데 벌써 2020년의 새해 인사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찾아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태양은 매일 떠오르지만, 햇살은 어제의 그것이 아니고, 어제 심은 나무는 앞으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오늘도, 그리고 올 한해도 이전보다 더 반가운 소식과 더 행복한 일상이 찾아오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경자년을 맞이하면서 교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월 1일 경자년 새해 아침
코린도그룹 회장 송 은 호



신년사



존경하는 한인 동포 및 기업인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동포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희망과 활기를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재선에 성공한 조코위 대통령의 높은 관심으로 전자상거래, 핀테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공유경제, 라이드셰어링, 전자지갑 등 디지털 경제가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물류 인프라 개선, 산업 혁신 성장 등의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아울러 더 많은 유니콘 기업 창출을 위한 ‘1,000개 스타트업 설립 프로젝트’ 등으로 스타트업 설립에 관한 규제 또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참은 많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각종 세미나, 간담회 및 포럼 등을 꾸준히 개최하여 현지 주요 정책에 대해 한인 기업에 공유하고 있으며, 우호적인 양국 관계 유지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애로사항 전달 및 신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외국 상의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위원회를 운영하여 한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훌륭하게 본분을 다하신 우리 한인 기업인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지난 한 해 코참을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도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 당부 드리며, 한인기업과 동포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어줄 것을 약속 드립니다.

새로운 10년의 닳을 올리는 2020년입니다. 더욱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노력의 성과를 수확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Go Global, KOCHAM Together!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송 창 근

인도네시아 한인동포가 함께 쓰는 '한인 100년사'



김문환 (한인뉴스 논설위원, 한인100년사 총괄 및 대표집필위원)
잘란 수디르만을 지날 때마다 한곳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그곳, 아프마자야 대학! 비운의 짐을 지고 1942년 만중쁘리옥항에 발을 디딘 1408명의 조선인들, 보르네오 원시림 속에서 태극기를 꽂고 삶을 개척하던 우리의 선구자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상들의 기록이 한권의 책으로 압축되어 나올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뛰다.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 한인100년사 수석집필위원)

한인 100년사 편찬을 위해 여러 한인들을 인터뷰하고, 여러 곳을 현장 답사하면서 우리 한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지내셨는지 알게 되었고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이야기는 아무 때나 인터넷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사료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담아내겠습니다.

역사는 쓰는 자, 기록하는 자가 만든 과거이고, 우리는 그 과거를 토대로 오늘을 살며 미래를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콘텐츠가 있다면 밝은 미래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편찬위원일동



배동선 (작가, 한인100년사 총괄집필위원)

한인 100년사는 재인도네시아 동포사회가 걸어온 길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밝히는 역사의 한 모퉁이 가로등 불빛이 될 것입니다. 그 빛의 밝기는 집필진이 치우침없는 공정한 마음으로 폭넓게 모은 자료를 얼마나 성실히 소화하여 활자화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편찬위 모든 구성원들을 도와 오늘날 다양한 색채의 족적을 만들어가는 모든 한인 단체과 기관들의 과거 역사와 현주소를 기술하며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 없이 모두 자기 본연의 빛으로 한인사 페이지 속에서 반짝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고 정색하고 말하는 일말의 꼴통스러움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며 그 부분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려 합니다.

손인식 (작가, 한인100년사 집필위원)

인도네시아 한인 백년사, 타국에서 생성한 또 하나 한인의 역사 아닌가요? 이 거사 참 가능하기도 만만치 않네요. 모두가 동참하여 포괄하고 이해해야 하지 싶습니다. 몇 쪽 몇 줄이라도 맡겨진 임무에 무게를 느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선근 (UIN교수, 한인100년사 수석연구위원)

한인 100년사 재조명, 한인사회의 어제와 오늘 집대성을 위한 작업의 실 타래가 한을 한을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작금의 마당에 한인사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더불어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국장, 한인100년사 집필위원)

인도네시아라는 지평선 위에 한국인이 만들어낸 풍경을 바라봅니다. 정지한 한 장의 사진 같지만 실제로 지난 100년 간 풍경은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2020년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 압축되고 축소되어 그려질 한 폭의 풍경 속에, 새로운 100년을 위한 꿈과 희망도 담기길 바랍니다.



채인숙 (시인, 한인100년사 수석편집위원)

2020년은 인도네시아 한인사에 매우 뜻깊은 한해가 될 것입니다. 1920년 3.1운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망명한 장운원 선생이 바타비아에 첫발을 내디딘지 100년을 맞으며, 인도네시아 한인사 100년을 역사로 기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책의 수석편집위원을 맡으며,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스토리와 더불어 흥미로운 인터뷰와 팩트에 근거한 자료를 적절히 배치하여 한 권의 소설을 읽는 듯한 재미있는 한인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한인100년사 총괄집필위원)

2020년 계획은 인도네시아 한인사를 함께 완성하고, 시작한 공부를 꾸준히 하며,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한 장의 책을 읽고, 매일 한 쪽의 글을 쓰고, 매일 한시간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람은 그가 보낸 시간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고, 한인사는 그런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쌓은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쌓아온 시간을 기록하는 일에 함께 하자고, 한인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새해를 여는 시



예경 앞에서

김준규



제야에 창문을 흔드는
금빛 트럼펫 소리

잘알처럼 철 못에 매달려
쉬임없이 날자를 토해 내던
카렌다의 마지막 한 장을 떼어내고

울컥하며 돌아눕는
십이월의 끄트머리

삶의 구석에 따리를 뜯 리로움
더러는 팔을 벌려 주던 기쁨도
지는 해는 볼썽으로 다시 피어
정자면 새 아침의 빛장을 푼다

풍량이 잦아든 고요한 바다
적도의 만선을 꿈꾸며

수평선 너머
장엄하게 들러오는
새벽의 발자욱 소리



김문환/논설위원

반일 폭동과 대망의 길

1974년 1월 15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다나카(田中角榮) 수상이 계란세례를 받은, 소위 ‘말라리사건(Insiden Malari)’ 이라 부르는 전국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일주일 이 지난 1월 22일 알리 무르도보 소장으로부터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베니, 지금 당장 출발하여 내일까지 자카르타에 도착하시오. 사태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각하 의 긴급 호출이오.” 베니 총영사는 곧장 인도항공(Air India)에 몸을 실어 홍콩을 경유하여 다음날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알리 장군의 안내로 대통령 궁으로 올라가니 대통령께서 반색을 하며 맞아 주었다. “베니, 잘 왔네. 우리 내부문제인데 필히 정리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소. 요가 수고모(Yoga Sugomo) 장군이 국가정보원(BAKIN)을 맡을 것이고 당신은 군부 쪽 정보파트를 총괄하시오.” 대통령의 짝막한 이 몇 마디로 베니는 9년간의 외교관생활을 접고 군문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운명의 대전환을 맞게 된다.

수하르토 장군은 1967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말레이시아와의 대결정책을 종식시키고 국제연합(UN)에 복귀하여 국제무대에 재등장하였고, 국내적으로는 나사콤(NASAKOM) 체제의 청산과 공산당 척결을 통해 치안질서회복과 경제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정치적인 견인차로서 골까르당(Golkar)을 창당하였으며 뽀짜실라(PANCASILA) 국가이념을 확고히 하였고 미국 유학파인 버클리(Berkeley)대학 출신 경제 테크노크라트를 대거 등용하여 성장모델의 경제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러한 혼란기에 각 분야의 제반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기존 정부조직이나 인적자원만으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제도 외적인 조직 내지는 측근을 통한 통치행위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 하나가 대통령 특별보좌관(ASPRI, Asisten Pribadi) 제도였다. 1950년대 중반 중부자바 지역사령관(Pangdam Diponegoro) 때부터 줄곧 측근 참모로 보좌해왔던 알리 무르도보와 수조노 후마르다니(Soedjono Hoemardani) 장군이 각각 정치, 경제로 분담하여

최측근에서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었다. 이들은 경제개발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1971년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라는 썹크탱크(Think-tank)를 창설하여 다음해 125페이지에 달하는 ‘경제발전 촉진 25년 계획’이라는 백서를 발표했다. 25년 경제개발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일인 또는 동일 그룹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특별보좌관 직제 외에 치안질서회복사령부(KOPKAMTIB)와 특임제도(OPSUS)가 있었는데 제도권과의 상충으로 인해 구성원들간의 반목과 파벌을 유발시켜 급기야는 통수권자에게 화근이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1974년 1월 15일 다나카 수상 방문 시 폭동이 일어나자 자카르타 중심가에서 시위대를 설득하는 수미트로 대장(당시 치안질서회복사령관)

1969년에 이르러 수하르토 대통령은 그 동안 검직하여 왔던 국방부장관 겸 국군총사령관(Pangab)직을 팡가베안(Panggabean)대장에게, 치안질서회복사령관직은 수미트로(Soemitro) 대장에게 각각 넘겨 준 적이 있었다. 특히 ‘치안질서회복사령관’의 주임무가 9.30정변 이후의 공산당 잔당에 대한 발본색원과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를 분쇄하여 국가의 치안질서를 회복시킨다는 대의명분으로 인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수미트로 장군은 수하르토 대통령과 측근정치를 비판하는 대학생들을 설득할 목적으로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그들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의 비판은 주로 ‘대통령 측근의 안방정치의 폐해’, ‘25년 계획을 빙자한 장기 집권 획책’, ‘대 일본 경제예속화’ 등에 모아졌다. 특별보좌관 정치와 25년 계획에 대해 대학생들의 시각에선 비판적 성향을 보이고 이를 방어하는 알리 장군 입장에선 ‘수미뜨로 장군이 그의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여 대학생들을 선동하여 정부전복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양측의 입장은 위와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권력투쟁의 양상을 띄고 있었다. 1958년 1월 대일청구권 협상이 타결되어 일본의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이래 이미 일본에 대한 경제예속화의 징후를 보이던 시점과 맞물려 1974년 1월 15일 다나카 일본수상이 입국하자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스마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반일 폭동이 일어나면서 다나카 수상이 달걀세례를 맞는 봉변까지 당하게 되었다. 수하르토는 집권 8년 만에 맞는 이 위기를 계기로 하여 오히려 장기집권으로 들어가는 강권 정치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국제적인 뉴스거리를 제공하였던 계란투척 사건은 하리만 시레가르(Hariman Siregar) 등 자카르타 지역 운동권 대학생 12명이 주도하여 자카르타 중심가를 행진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선 이 사건을 ‘말라리 사건(MALARI, 1월 15일의 대재앙)’이라고 부른다. 소요에 따른 공식 피해 집계는 사망자 11명, 중상 17명, 구속 775명 그리고 807대의 자동차, 187대의 오토바이, 144채의 가옥파손 등이었다. 정보부재가 이 재앙을 불러 일으켰다는 책임추궁에 따라 정보기관에 대한 대수술과 친정체제를 굳히는 대폭적인 인사조치가 단행되었다. 알리 무르토보 소장과 수조노 후마르다니 소장이 각각 맡고 있던 대통령 정치, 경제 특보제도는 폐지되고 치안질서회복사령관직은 수하르토 대통령이 다시 겸직되 해군참모총장이던 수도모(Sudomo) 제독이 그 참모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일상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수미뜨로 장군은 해임되어 국군부사령관직만 2개월 유지하면서 주미 대사직을 제안 받았으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국군부사령관직은 제2군단장(KOWILHAN)으로 있던 수로노(Soerono) 중장에게 맡겨졌으며 국가정보원장(BAKIN)이던 수또보 유워노(Soetopo Yoewono) 소장은 주 네덜란드 대사로 좌천되었고 그 자리에 주 유엔대표부 부대사이던 요가 수고모(Yoga Sugomo) 소장이 재임용되었다. 아울러 주 한국총영사로 3년간 복무 중이던 베니 준장을 급거 귀국시켜 국방부 정보국장(Asisten Intelijen Hankam)에 보임시키며 단계적으로 인도네시아 모든 정보채널은 베니 장군에게 집중되게 된다. 즉 상기 직책 외에 치안질서회복사령부의 정보참모부장(Asisten Intelijen Kopkamtib), 통합정보처장(Komandan Satuan Tugas Intelijen) 및 특전사 지휘권이 있는 전략 정보처장(Kepala Pusat Intelijen Strategi)을 관장하게 되니 이때부터 베니 장군의 앞길엔 정권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대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간 인도네시아 경제지도를 일장기로 뒤덮던 일본자본 유입도 일단 제동이 걸리며, 한인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한다.



흉추(등뼈)의 움직임을 살려주자!



등과 어깨가 굳어 슬픈 이들에게 희소식 하나,
굽은 흉추를 펴주는 스트레칭과 회전동작을 통해 흉추의 움직임을 살리 수 있다!

- ①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벽에 팔꿈치를 대라.
- ② 가슴을 앞으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한다.
- ③ 이 동작을 20초 정도 유지하며 3회 반복한다.

- ①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발 옆으로 두 손을 나란히 놓는다. 이때 척추는 일자로 정렬시킨다. 올바른 자세를 잡기 어려운 분들은 꼬리뼈가 정수리 중앙을 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잡는다.

01 벽에 팔꿈치를 대고 하는 흉추 스트레칭

- ② 발과 가까이 있는 팔을 열어 몸통을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한다. 팔을 넘기기보다 몸통을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선은 손끝을 따라간다.
- ③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각 10회씩 실시한다.

서혜부 스트레칭과 흉추 회전 동작 02

☹️ 주의할 점: 골반을 과도하게 틀어서는 안 된다. 허리를 앞으로 눌러준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자연스러운 동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의할 점: 척추를 1자로 잘 정렬한 상태에서 몸통을 돌릴 수 있는 만큼만 해줘도 된다. 과도하게 돌려 자세가 무너지지는 말자.



■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시기와 산업별 유형(2)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한인사 편찬위원

[편집자주] 이 글은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을 위한 사료로, 한인들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첨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인뉴스를 비롯한 여러 한인 미디어에 게재합니다. 이 글 주제와 관련해 사진과 기록물 등 다양한 자료를 제보해주시면,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한인사에는 편집을 거친 사료를 전체 분량을 고려해 일부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의 주역인 한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980년 후반기 한국 기업이 동남아 국가를 투자 대상으로 주목한 이유는 주로 원화의 절상, 임금 상승, 노사분규, 선진국들과의 통상마찰 등 국내 외적 경영 여건의 나빠졌기 때문이다. 당시 동남아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노동력이 풍부하고 비교적 임금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특혜관세(GSP) 수혜를 받고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 노동집약산업의 투자가 몰렸다.

1985년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호텔에서 G5 경제선진국(프랑스, 서독, 일본, 미국, 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에서 발표된 환율에 관한 결정사항인 ‘플라자합의’에 따라 엔화 가치가 급등했다. 플라자합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큰 행운이었다. 1985년 당시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도 2.5%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해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의 문을 크게 열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특정 분야를 설정하여 투자가 제한되었지만 100% 수출하는 경우 개방 분야를 확대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1986~1990년과 1991~1995년 기간에 각각 6.3%와 7.1%로 고성장을 구가했다. 아시아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 경제성장률은 7.8%로 절정에 달했다.

수출 호조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1990년대 들어 내수도 증가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부문 모두 활황을 보였다. 하지만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겪었고 경상수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인도네시아는

경상수지 적자로 외채가 증가했지만 정확한 외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금융과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국의 통화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정책 당국은 조정을 주저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1997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들어간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동시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현지 한인 기업들은 위기를 맞이했다. 1997년 경제 위기와 1998년 이후 민주화 과정의 정치사회적 불안정은 한인사회 존속을 일시적으로 위협했다. 특히 1998년 5월 폭동 때는 5천여 명의 한인들이 비상 탈출해야 하는 위기 상황을 겪었다. 하지만 부인과 자녀를 출국시킨 뒤에도 많은 한인 사업가들이 잔류하면서 현지 사원들과 함께 회사를 지켜냈다. 당시 일본과 서구 자본이 대거 인도네시아를 떠났지만 한국인들만은 곳곳이 남아 인도네시아인들과 고통을 함께했다.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자신들이 어려울 때 도와준 진정한 친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위기를 극복한 한인 사회는 이후 더 강한 면모를 드러냈다. 2000년 이후 봉제업계가 다시 증가하고 금융, 유통, 철강, 석유화학, 정보통신기술(ICT)과 한류 관련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진출하면서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영사 통계의 보수적인 추산에 따르면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동포는 2009년에 3만 700명으로 2005년의 2만 3,025

명보다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체류자들은 1998년 5월 폭동 이전에 12만여 명이나 체류했지만, 이후 2만 명 규모로 줄어 한국인들에게 최대 외국인 공동체 자리를 넘겨주기도 했다. 1990년대가 한인 기업 투자의 ‘첫 번째 물결’ 이었다면, 2000년대의 현상은 가히 ‘두 번째 물결’ 이라고 표현할 만하다.

한인 투자의 두번째 물결은 중소기업 투자로 시작됐다. 두 번째 물결 초창기는 중소기업 투자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외환 위기 이후 현지 통화의 가치 하락 덕분에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졌다. 2000년대 중반에 넘어서면서 봉제 부문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다시 성황을 이르면서, 폐업하는 한인 관리자들이 귀국하지 않고 독립해 창업하는 경우도 늘었다.

2005년 188개였던 한인봉제협회(KOGA)의 회원사는 2007년에 227개로 늘어났다. 2012년에는 정회원사가 255개로 증가했고, 준회원사도 118개나 됐다. 업계의 지리적 분포로 자카르타와 인근 산업지대에서 수카부미, 스마랑 서부자바의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됐다. 2004년 12월 31일 세계무역기구(WTO) 섬유협정이 발표되면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의 섬유 쿼터가 철폐되고 섬유 제품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 봉제 관련 한인 기업은 더 이상 쿼터가 부여된 나라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비교 우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2010년 전후에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진다. 롯데마트가 2008년 10월에 인도

네시아 마크로(Makro) 19개점을 인수하며 우리나라 유통 업체로서는 최초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2010년 8월 직접 투자 방식을 통해 수도 자카르타에 간다리아 시티점(Gandaria City)을 오픈했고, 2019년 12월 22일에 중부자바 주 뜨갈 지역에 인도네시아 50호점을 내는 등 2023년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 점포를 100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3년 9월 한국타이어는 서부자바 주 버카시 지역에 있는 공단에 7번째 글로벌 생산시설을 완공해 승용차용 타이어, 초고성능 타이어, 경트럭용 타이어 등을 연간 110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해 12월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업체 크라카타우스틸이 각각 70%, 30%씩 투자해 설립한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생산능력 300만톤 규모의 동남아 최초 일관 제철소를 완공해 가동한지 4년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톤을 돌파했다.

롯데케미칼은 5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반뜰 주 질레곤 지역에 약 47만㎡ 면적의 부지에 납사 분해설비(NCC) 등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 12월 착공, 2023년 하반기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 투자협약식 전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코나EV 보닛에 기념 서명을 한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 11.26) [사진: 중앙일보]

현대자동차는 약 1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서부 자바 주 짜카랑 지역 델타마스 공단에 연간 15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다. 이 완성차 공장은 2019년 12월에 착공해 2021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25만 대 생산 규모로 증설할 계획이다.

2019년 11월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정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됐다.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에 5~15% 부과됐던 현지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현지에서 완성차·조립 공장을 짓는다면 무관세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계 브랜드가 95% 이상 장악한 상황으로 진입 장벽이 높았으나, 우리나라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와 가격 경쟁에서 대등한 선상에 설 수 있게 된다.

총 33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 가량이 투입될 인도네시아 동부갈리만판 새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 이전 메가프로젝트는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정보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시티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도 아세안과 스마트시티 협력에 적극적인 만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전걸음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우리 정부 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간 공식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고, 세종시 ‘행정도시’ 건설 경험과 기술력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어 현대건설은 국영 건설회사 후따마 까르야(Hutama Kary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도 이전 사업은 물론 자카르타 북부 방조제 사업과 대형 국책 정유 및 석유화학 공사에 대해 상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번순, 2019, 아세안의 시간 - 동남아시아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지식의 날개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2013, 한국-인도네시아 외교 40년사.
전제성, 유완또 외, 2013, 인도네시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인도네시아 - 투자와 이주를 통한 문화 교류, 이매진
엄은희, 2013,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의 역사와 현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제334~335회 문화탐방

<인도네시아 한인사 100년 기획탐방> 5

고려독립청년당의 독립투쟁 현장과 스마랑을 찾아서

1945년 1월 4~6일 3일간 중부자바 암바라와 일대에서 조선인 포로감시원이던 민영학, 손양섭, 노병한 의사가 일본군 십여 명을 사살한 후 모두 자결합니다. 이 암바라와 의거 현장과 역사 도시인 스마랑을 찾아 나섭니다.

제334회 문화탐방: 2020년 1월 19일(일) - 암바라와 의거 현장

- 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 스모위노 보병 훈련장 취사장
- 암바라와 3의사가 무기를 탈취한 스마랑 포로수용소 무기고
- 암바라와 의거 현장인 포로수용소 스마랑분소 암바라와 성요셉성당
- 민영학 의사의 자결지인 암바라와 수수밭
- 손영섭, 노병한 의사 자결지인 위생자재창고
- 일본군 위안소가 위치했던 암바라와 성 외



한국일보 고찬유 특파원 제공

제335회 문화탐방: 2020년 1월 20일(월) - 스마랑

- Candi Gedong Songo
- Vihara Watugong
- Sam Poo Kong(정화 사원)
- Lawang Sewu 외 * 상세 일정 추후 공고

• 회비(항공권, 호텔, 차량, 4회식비 외): Rp. 3,500,000, 비회원Rp. 3,800,000

• 접수: 밴드댓글: <https://band.us/@ikcs>

SMS/카톡 081-111-7230, 0816-190-9976, ikcskr@gmail.com

한인 100년사 편찬을 응원해 주세요!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나(3)

인도네시아 가사도우미와 자가용 운전기사에 대해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국장, 한인사 편찬위원

[편집자주] 이 글은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을 위한 사료로, 한인들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첨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인뉴스를 비롯한 여러 한인 미디어에 게재합니다. 이 글 주제와 관련해 사진과 기록물 등 다양한 자료를 제보해주시면,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한인사에는 편집을 거친 사료를 전체 분량을 고려해 일부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의 주역인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현지인 가사도우미, 유모, 그리고 운전기사를 잘 만나는 것이 현지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무덥고 습한 날씨와 열악한 교통 인프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더불어 아이가 있으면 유모 그리고 정원이 있는 주택에 살 경우에는 정원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모든 것이 그렇듯 가사노동과 운전을 대신해줄 현지인을 고용하는 일도 양면성이 있다.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서 여가시간이 늘고, 대중교통보다 쾌적하게 자기 차로 이동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다른 문화를 가진 외부사람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고 좁은 차 안에서 함께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않다.

가사도우미는 ▲청소, 빨래, 주방일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 나쁜 의도를 품고 접근하는 방문객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앞서 유선전화를 주로 사용하던 시절에는 전화를 통해 접근해오는 불편한 사람들을 걸러주는 역할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일년 내내 무덥고 습지와 풀이 많아서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개미, 바퀴벌레, 모기, 파리, 도마뱀, 쥐까지 다양한 해충과 동물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대청소 수준의 청소를 매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사도우미 월급은 지역최저임금(UMP)의 70% 정도에서 책정되지만, 일의 양과 다른 가사도우미들이 더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택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은 어디나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있지만, 과거에 작은 상점조차 귀할 때는 고용주가 장을 볼 때 쌀, 식용유, 비누, 샴푸 같은 기초식품과 생필품을 직접 구입해 주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고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며 ▲치안이 불안한 곳이 많아서 외출하려면 자가용이 필요했고 ▲사고가 날 경우 외국인은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되기 쉬워서 운전을 할 줄 알아도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운전기사 월급은 지역최저임금보다 20~30% 높은 선에서 책정되지만, 역시 업무 강도와 출퇴근 여건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조정이 된다. 예를 들면, 회사 소속 기사는 직원 기준 임금을 적용하고, 고용주가 야간회식 등 모임이 많으면 잔업비가 증가해 전체 수령액이 커진다. 반대로 가정에 고용될 경우 잔업시간이 거의 없고 자녀의 등하교와 낮 시간 외출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최종수령액 결정된다. 또 출퇴근 거리가 멀 경우 차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한다.



아이가 있는 경우 유모를 고용한다. 가사도우미보다 임금이 높으며, 특히 신생아를 돌보는 유모 임금이 가장 비싸다. 유모와 가사도우미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소개를 받지만, 가까운 이웃이나 주변 현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는 경우도 많다.

가사도우미와 유모를 고용함으로써 생기는 혜택은 시간과 감정의 여유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사도우미 덕분에 남자 혼자서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때도 깨끗한 방과 깔끔한 복장을 유지할 수 있고, 집에서 적절한 수준의 식사도 해결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도 가사노동을 하는 대신 개인적인 취미활동이나 종교단체와 교민단체 활동 같은 사회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자카르타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에는 그림, 글, 서예 등으로 등단하거나 플로리스트나 아마추어 음악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지금처럼 유통과 외식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식재료를 구입해서 한국식으로 손질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을 모두 가정에서 담당해야 했고, 호텔이 많이 생기기 전에는 한국에서 오거나 지방에서 오는 한국인 손님들을 집에서 묵게 해야 했는데, 가사도우미들의 도움이 컸다.

6개월 된 아들을 키우던 지인은 “유모와 가사도우미가 모두 있으니 책 읽을 시간이 난다. 한 사람

만 없어도 커피 한 잔 마실 여유가 안 생긴다” 고 말했고, 1살과 3살짜리 남매가 있던 또 다른 지인은 “지치는 일은 유모와 가사도우미가 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더 관대할 수 있고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인도네시아 한인 가정 중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비율이 한국보다 높고, 인도네시아로 이주해서 아이를 한 명 더 낳는 경우도 종종 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사람이 늘면 문제도 더 생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인 2명만 모이면 남녀 가리지 않고 고용인 문제를 말한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교민 웹사이트, 카카오톡 단톡방,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에서도 현지인 고용 문제를 언급하는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가정부를 모시고 살아요’ 또는 ‘운전기사와 외출하는 것이도 닦는 시간이예요’ 라는 말로 외부인과 한 집에서 또는 한 차에서 지내는 어려움을 표현한다. 대부분 현지인 가사도우미들은 정직하지만 일의 책임 범위와 물건 사용 범위 등은 한국인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또 임금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있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다. 말을 돌려서 하거나 직접 말하는 것을 회피하다 보면 거짓말을 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기사의 경우도 무단결근, 월급에 대한 이견, 운전 미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인도네시아도 인건비가 상승하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김에 따라 가사도우미나 자가용 운전기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대신 고젝과 그랩 같이 온라인 차량호출 서비스, 우리 지하철에 해당하는 MRT와 LRT 개통, 다양한 등급의 버스 노선 확충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호텔산업, 외식산업, 유통업이 발달하면서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의 역할도 줄고 있다. 지금까지와 달리 한인 가정에서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를 반드시 고용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같다.



인도네시아 한인사 100년의 발자취를 더듬다

기획 탐방 4.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개신교' 편

이영미/한인사 편찬위원회 연구위원

인도네시아에 한국 개신교가 뿌리내린 지 약 50년이 되었다. 한인회 소속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회는 2019년 12월 5일(목) '인도네시아 한인사 100년 기획 탐방'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한인 역사 속의 종교공동체 개신교편' 문화 탐방에 나섰다.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이 주최하는 개신교 333회 문화 탐방은 연합교회(라디오달랴와 끄망기산 지역의 구선교관, 현지 일파누엘교회, 찰빛교회와 열린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선교의 교두보 사명을 안고 설립된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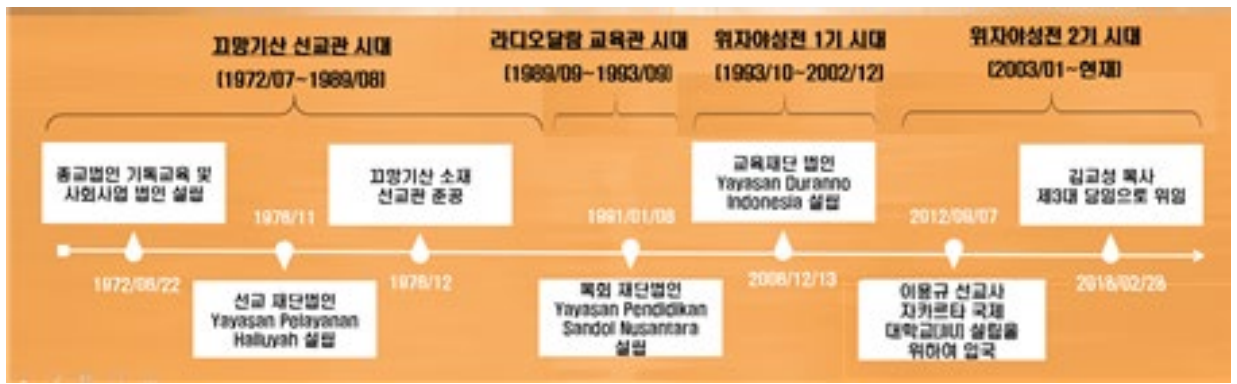


2018년 2월 28일 제3대 담임으로 위임된 김교성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베퓌의 선교’를 실천하려 합니다. 선교국에서 선교 전략을 잘 세우는 것만큼 선교 사역을 하려는 마음이 굳건한 연합교회 교인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1972년 설립된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는 (고) 서만수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들의 든든한 거목’이라 불린 서만수 목사는 1973년 정식 국교가 수립되기 2년 전인 1970년 9월 28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이후 싱가포르에서 1년간 공부를 하고 1971년 12월 30일 입국, 1972년 7월 2일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가 창립되기까지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서만수 목사와 비슷한 시기에 입국한 박창환 목사는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다 방카섬으로 건너가 현지인 선교에 전력을 다했다. 2009년 소천하기까지 38년간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를 담임한 서만수 목사에 이어 2대 김학진 목사, 3대 김교성 목사와 신실한 성도들이 함께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있다.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에 들어선 탐방팀을 먼저 반긴 것은 아잔 소리였다. 마치 일부러 스피커를 교회 쪽으로 돌려놓기라도 이슬람교도에게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탐방팀의 걱정에도 김교성 목사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답변했다. “처음에는 아잔 소리를 듣기 힘들어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베퓌의 선교’를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현지인들과 인간적인 친밀감을 형성하고 복음을 전파해나갔습니다. 매년 2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지역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어느 해 폭우가 내려 1층 건물이 침수되기도 했지만, 연합교회 성도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현지인 구제에 앞장섰다. 의료진을 대기시켜 피부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 치료에 앞장서며 ‘선한 일을 하



는 종교'로 인정받았다. 현지인을 포용하는 자카르타연합교회의 선교 전략이 성공한 셈이다. 이를 증명하듯 26명으로 시작한 성도가 현재 성인 약 600명, 학생 400명으로 늘며 인도네시아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성전으로 자리 잡았다.

참빛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지선교에 앞장서는 참빛교회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 목표와 표어



참빛교회의 역사는 자카르타 연합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 여섯 가정이 '현지 선교'를 목적으로 예수구주교회(Yesus Penyelamat, GMII)를 설립하여 1999년 9월 12일에 창립 예

배를 드리며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참빛교회 20년 약사(1999년~2019년)'를 발간했다. 본 기록서에는 빠꾸부오노 성전과 느헤미야 목회훈련원, 끄망 성전에 걸친 참빛교회의 역사적인 순간들이 기록돼 있다.

설립 당시에는 교회 이름만 들어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명을 찾아 고심하다 '예수구주교회'로 정했으나 2004년 9월 현재의 담임인 박운길 목사가 부임하며 참빛교회로 개명하였다. 참빛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현지 사회와 밀착된 행보를 보였다. 초기 5년간 인도네시아인 목사 네 명과 김영복, 최용준 한인 목사 두 명이 동시통역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때의 교인 비율은 한인 20명에 인도네시아인이 80명일 정도로 현지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현재는 현지인을 포함해 약 30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하고 있다.

참빛교회가 위치한 거리에는 3~400미터 간격으로 이슬람 성전이 자리 잡고 있다. 처음에는 비영리 단체인 야야산(yayasan) 활동으로 문화강좌를 하며 현지 지도자들과 친해졌다.



참빛교회의 역사적인 순간들



이후 야야산 멤버들이 기도를 드린다며 현지 지도자들을 설득한 끝에 종교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아나 한부모 가정 중 매년 30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벌써 1000가구가 넘는 현지인들이 도움을 받았다. 이렇듯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주며 참빛교회의 ‘현지 밀착 선교’가 빛을 보았다. 그 결과 좋은 일을 하는 교회로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한인들이 성장해야 뜻하는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인과 현지인의 예배를 완전히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동시통역 예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진행합니다.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삶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주재원들이 있으면 새 가족도 오는 법! 하나님이 새 시대를 감당할 새 일꾼들을 보내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두 참빛교회 성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20년 성년을 맞아 주일예배 200명 출석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년간 월간지 ‘일하는 제자들’ QT 본문 집필을 맡았던 박윤길 목사는 개인 SNS에 주기적으로 ‘선교 편지’를 게재한다. 상반기에 쓰인 선교 편지에서 그의 간절한 바람을 읽을 수 있었다. “난 너무 과분한 은혜로 살고 있다.” 고 말하는 박윤길 목사의 얼굴에 따스한 일광이 스치고 지나간다.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열려있는 인도네시아열린교회

1988년 10월 2일 한승인 목사와 92명의 교우들이 ‘에바다’ 현지인의 예배당에서 현재이 인도네시아 열린교회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인 선교교회를 개설했다. 이후 교회의 분리와 내부의 갈등을 겪으며 시련의 역사를 뛰어넘는 의지와 믿음을 다지게 된 선교교회는 2002년 1월 27일 인도네시아 열린교회로 개명하며 내실을 다진다. 2003년 11월 28일 부임한 김용구 담임 목사가 교회 표어를 ‘오직 예수’로 정하며 내실을 다지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18년째 열린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김용구 담임목사는 자기계발에도 적극적이다. 플로신학교 박사과정을 공부한 그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한 타문화권 선교 연구」라는 주제로 졸업 논문을 작성 중이다. “목사 위주로 진행되는 현재의 교회 사역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진짜 선교 사역은 교인이 앞장서야 합니다. 목사의 일은 교인들이 뜻을 펼칠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한인교회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타문화권 선교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지인 스스로 하려는 의지를 불어넣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는 김용구 목사가 지난해 표어로 삼았던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의 근간이 된 성경 문구와도 부합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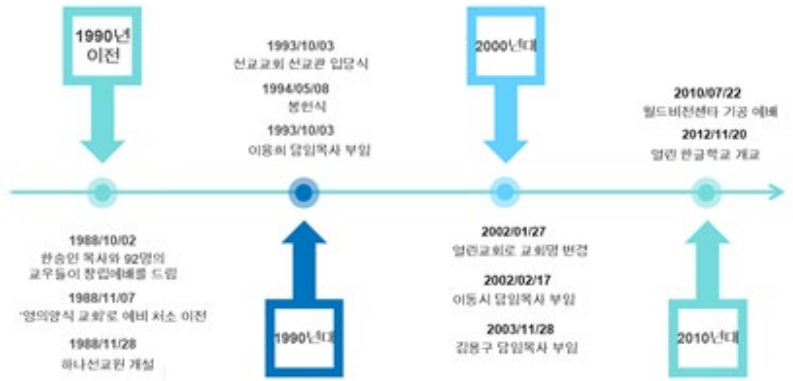
(창세기 12:1-3)

교민사회의 자양분 ‘참빛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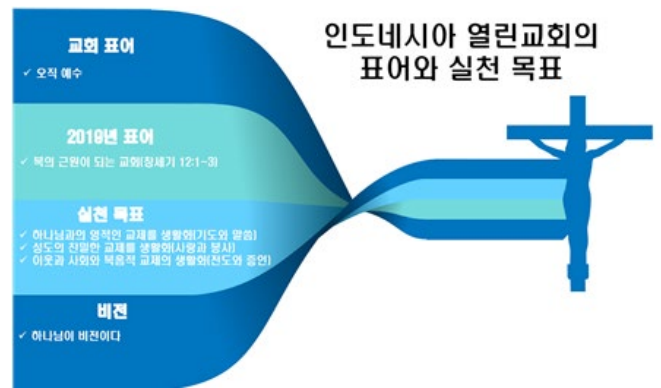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열린교회 연혁



한인 2세 교육에 앞장서기 위해 설립된 ‘하나유치원’에서는 현재 교사 다섯 명과 원생 55명이 신앙의 씨앗을 싹틔우고 있다. 한때 독보적이라 평가받던 특수학교 와스쿨은 교사진을 재정비 중이다.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승인받아 개원한 열린 한글학교에서는 60여 명의 한인 2세와 150여 명이 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열린교회는 현지인을 위한 사역에도 열심이다. 15년 동안 ‘한 가정 한 교회 섬기기’ 운동으로 138곳이 넘는 현지인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무료 직업훈련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현지인을 한인 사



업체와 연결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교인들에게 기증받은 성경을 형편이 어려운 현지교회와 기독교 병원, 동티모르 등에 보급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감 없이 뿌리내리는 데 힘쓰고 있다.

지난 12월 사공경 한인문화원장이 발리한인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인천 승덕여고 비전트립팀과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우정을 나누며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K-POP 경연을 하고 있었다.

“달랐다. 발리한인교회는 달랐다. 자연과 사람과 신이 공존하는 발리여서일까. 1991년에 개신교 신앙심으로 세운 이 교회(담임:유호종목사)는 예수, 그 신비한 이름을 전파하는 그들의 신념대로 발리 힌두교인들을 섬기며 각자 재능기부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현윤경희 한인회장은 동포 자녀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발리한국토요학교(2000년)를 설립하였다.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여사와 김윤옥여사(2003, 2011)가 토요학교 방문> 이후 이 학교는 재외동포재단의 정식 후원기관이 되었다.

발리한인교회는 8년 전에 중앙정부허가를 받아 한국어학당을 설립하여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육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한국어학당 재학생 중 우수한 5명을 선발하여 한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제 한국어학당은 세종학당과 협업하여 현지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한다. 발리한인교회는 무엇보다 현지인을 사랑하는 교회였다.”

- 사공경 한인문화원장



시그널 게임! 모두가 패자인 게임은 없다. 2020년 경제전망, 그리고...

글: 황준규 (신한은행 부장)

‘어두운 터널에 들어섰다’,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터널의 끝은 어디일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어든 글로벌 물동량 및 경쟁심화로 인해 꼬꾸라진 해운업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진단과 전망이다. 처음에는 단기적인 불황일 뿐 곧 반등할 줄 알았던 업황이, 반등을 모르고 침체를 이어가다 결국에는 그 끝을 예단할 수도 없어 터널이 아닌 동굴로까지 비유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그 터널의 끝에 채 다다르기 전에 아쉽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국내 1위 해운사의 마지막은 3년이 훌쩍 넘은 아직까지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미리 대비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정확한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GPS도, 목적지를 안내해주는 친절함 네비게이션도 경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0년 또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전문가들이 바라보는 2020년의 전망은 밝지가 않다. 2008년 경제위기를 예측했던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를 이끄는 ‘헤지펀드의 제왕’ 레이 달리오는 2020년을 1930년 대공황에 비유하였으며 닥터 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교수 또한 2020년을 위기도래의 해로 지목하는 등 미국 경제학자 5명 중 4명이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거시경제를 예상할 때 흔히 금리, 부채, 환율 등의 지표를 주목한다. 그리고 최근에 부상한 새로운 지표는 바로 중국이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 하나 좋은 시그널이 없다는 것이 부정적인 전망의 이유이다. 저금리라는 링거주사로 바닥난 체력을 범평했던 실물경제는 금리가 반등하게 되면 유동성이라는 두터운 화장을 지우고 민낯을 드러낼 것

이라는 우려, 그리고 이보다 심각한 것은 바로 빛이다. 사실 적당한 부채는 돈이 돌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다만 문제는 빛이 늘어나는 속도이다. 역사적으로 지나치게 빛이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 대부분 경기불황으로 이어졌는데 최근 몇년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빛이 전례없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포인트다. 특히, 그 돈들이 기업의 투자가 아닌 주식과 부동산으로 스며들어 버블을 만드는 것이 문제인데 부동산이나 주가가격이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어 상승할 경우 위험신호로 받아들여 진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부동산 가격은 그 상투가 어딘지를 모르고 치솟고 있는 중인 바, 하락의 변곡점이 등장하는 순간 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그 무서움이 있다. 지난 10년간 장기호황이라고 해도 역대 호황국면에 비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낮았다. 하지만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로 풀린 돈이 세계 부동산 가격과 미국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자산 가격만큼은 그 어떤 호황 못지 않게 부풀어 올랐다.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든 쉽게 추가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세상이지만, 돈도 없고 신용도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데서도 자금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렇게 성장은 제대로 못하면서 자산 가격만 치솟아 오르는 기현상은 부의 쏠림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되버린 중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량은 이미 2018년에 미국의 두배를 훌쩍 뛰어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이후 원화가치는 위안화 가치와 그 트렌드를 같이하게 되어 중국 경제는 우리나라가 가장 주목해야 할 지표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 위험이 산재하나 이렇다할 대책마련은 없어 보인다. 지난 2년간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한 양국의 무역 갈등이 어느정도 해소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자본투자 및 글로벌통화 패권 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자본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어려운 시그널들에도 불구하고 낙담만 할 수는 없다. 경제는 생물이자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 변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선불리 예단할 수 없으며 어제의 패턴만으로는 내일을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거의 정보로 미래를 예측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드리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이른바 ‘확증편향(確證偏向)’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편견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보를 편식해서 받아드리게 되는데 경제시스템 속에서는 언제나 뜻밖의 반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확증편향에 빠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그널이 아닌 서로 상관 관계가 없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패턴을 찾아내려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 서로 관계없는 노이즈

들에서 찾아낸 패턴과 규칙성은 당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경제의 근본적인 흐름과 관련없는 엉뚱한 패턴에 집착하게 된다면 자칫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 불황에 대한 시그널을 읽어 내는 것은 경제주체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런 시그널을 통해서 위기를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곳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IMF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 했지만,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부동산을 비롯, 폭락한 자산들을 헐값에 구매해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리며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렸던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는가? 결국, 경제가 궁극의 파탄을 맞이하지 않는 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주기나 변곡점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상승장이든 폭락장이든 기회는 항상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또 하나의 별이 졌다. 전 대우그룹 총수 김우중 회장이야기다. 평가야 다를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 우연히 읽었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라는 책은 필자로 하여금 세계로 뻗어나갈 대한민국의 침병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해준 특별한 기억이 있다. 그럼에도 김우중 회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출신화’를 이뤄낸 포기를 모르는 사업가, 그리고 한국 최초의 세계경영인으로 각인돼 있으나 한편으로는 외환위기 직후 해외로 도피한 무책임한 대기업 오너, 분식회계와 부정 대출로 국가이미지를 실추한 장본인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엇갈리는 평가를 뒤로하고 필자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예전 대우맨들의 긍지와 자부심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세계경영에 기여한 바를 짐작할 만 하다. 그리고 김우중 회장 또한 세계경제가 유례없이 크게 출렁이는 시점에 (하필이면) 그 싸이클을 거꾸로 올라 탔던 불운의 경영자라는 사실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재인도네시아 칼리만탄 한인회 설립 발기인 총회 및 창립 총회 개최



한국 양국 상호 협력하여 함께 발전하자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 기업이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칼리만탄 한인회를 통하여 협조 요청을 해올 경우 최대한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내년 초에 있을 발릭파판, 동부 칼리만탄 창립 기념일 행사에 한국 문화 공연

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비쳤다.

지난 12월 14일 오후 4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발릭파판에 위치한 Max One Hotel Balikpapan에서 발기인 대표 나성문의 진행 하에 재인도네시아 칼리만탄 한인회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발기인 대표 나성문을 임시의장으로 선출 총 9명의 발기인이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추대하는 등 뜻을 모았다. 발기인들은 그동안 한인들의 교제와 협력, 보호를 위해 한인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인회 창립을 위해 준비해 왔었다.

이번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정성화 (PT. Ese Hakuna Matata 대표) 회장은 인사말에서 35년간의 인니 생활 경험과 노하우로, 교민들에게 버팀목이 되는 든든한 뿌리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겸손한 울타리로, 또 현지인들과는 문화적, 경제적 교류에 전념을 다하는 다리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일 오후 6시부터는 총 2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인도네시아 칼리만탄 한인회 창립 총회가 이어졌다.

모든 회원들은 이번 한인회 창립을 통해 교민들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고 한-인니 양국간의 민간 외교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뿌리 깊은 한인회를 만들어 가기로 결의하였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김창범 대사는 향후 수도 이전 계획이 있는 칼리만탄에 한인회가 출범하게 된 것에 시의 적절하고 의미 깊은 일이라며 축하 영상을 전해 왔다. 그는 축사를 통해 이번 한인회 창립을 통해 칼리만탄에서 한인 사회가 지속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며 발전과 번영 있기를 기원하였다.

<재인도네시아 칼리만탄 한인회 임원명단>



초대회장 : 정성화
감사 : 이성헌
수석부회장 : 나성문
부회장 : 권금선, 윤상원
사무총장 : 배성운

(제공: 칼리만탄 한인회)

외빈으로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발릭파판 리잘 에펜디 시장(Wali Kota Balikpapan Bpk. H. M. Rizal Effendi)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리잘 시장은 축사에서 발릭파판과 동부 칼리만탄은 신수도 건설 발표로 인해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 인니와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인도네시아 선수단 해단식 및 회장 이취임식



제 100회 전국체전에서 선수와 임원 136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5개(태권도 2, 볼링 3),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여 해외동포부문 3위에 오른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선수단이 해단식을 가졌다. 김창범대사와 박재한한인회장을 비롯한 한인사회 각계 인사들, 체육회 관계자와 그 가족들이 모여 식장을 가득 메워 축제를 방불케 했다.

지난 12월 19일, 자카르타 리즈칼튼 호텔에서 열린 회장 이취임식과 더불어 펼쳐진 해단식에서 강희중 3대 회장은 “2010년 11월 20일 창립한 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는 해마다 골프, 볼링, 스쿼시,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의 7개 종목에 참가해오고 있으며, 올해 검도가 출전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배드민턴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열정과 성실로 게임에 임한 선수들과 응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임원진과 한인동포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

기로 북한을 방문하여 체육교류와 협력을 위한 합의가 있었으며 2032년 올림픽이 남북한 공동개최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이어진 축사에는 체육회의 화합과 10년간의 성장을 축하하며 인도네시아 한인의 위상을 높이고 아무 사고 없이 귀환한 선수들을 맞이했다.

김태화 단장이 준비한 포상금은 금메달을 획득한 볼링과 태권도선수들에게 각각 미화3,000달러가 돌아갔다.

이중현 4대 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나 포기하지 않는 투지로 2년간 최선을 다하겠다.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자신의 지평을 넓혀가는 한인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취임식은 공로패와 감사패증정에 이어 임원 소개 및 위촉장, 임명장수여로 이어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반란의 시대



동인도네시아 자치주의 국기와 수코와티 대통령(우측사진 중앙)

지난 호에 이어

물론 아지스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는 1930년 초 한 네덜란드인 은퇴자의 지원을 받아 함께 네덜란드에 들어가 레거스쿨(Leger school)을 다니고 1944년까지는 리쿰(Lyceum) 학교를 다니는 행운을 누렸다. 물론 그의 인생을 좀 더 따라가 보면 그게 과연 행운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모호해지지만 아무튼 그가 일반 인도네시아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네덜란드 본토의 높은 교육혜택을 받았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는 사관학교에 진학해 왕립 네덜란드군의 장교가 되고 싶어 했는데 이 시점에서 아지스는 자신이 술라웨시의 부기스족이라는 이름표보다 ‘네덜란드인’이라는 위상을 갖고 싶어 한 것이라 보인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때 유럽을 휩쓸기 시작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아지스는 그 뜻을 접어야만 했고 그 대신 나찌에게 점령된 네덜란드 지하저항군에 합류해 독일군과 싸웠다. 그가 나중에 방해공작팀이 되어 적전선 후방으로 투입되었다는 기록에서 제법 높은 전투력을 가진 레지스탕스 공작원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남태평양 태생의 순박한 얼굴이 유럽 한복판에서 나찌의 의심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일까? 독일군이 현지저항세력들을 강력히 옥죄어 오자 위기를 느

낀 그는 동료들과 함께 영국으로 밀항했다.

아지스는 런던으로부터 7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한 캠프에서 특수부대 훈련을 받았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훈련을 마쳤고 1945년엔 부사관학교 교육도 수료했다. 그러던 1945년 8월, 동남아시아 연합군 사령부(SEAC)는 인도네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원을 필요로 했고 그 결과 안디 압둘 아지스가 유럽전선을 떠나 인디아 소재 연합군 사령부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는 하사관 계급을 달고 콜롬보와 켈카타로 옮겨다니며 보직을 소화했는데 공군의 활람 빠르다나꾸수마와 같이 유럽 서부전선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한 몇 안되는 인도네시아인이었고 유럽과 태평양, 두 개의 전선에서 각각 나찌와 일본제국을 상대로 전투경험을 쌓은 베테랑 연합군 군인이었다. 게다가 특수부대 훈련까지 모두 이수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는 베스털링 대위에 비해 경력과 능력 면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아 보인다.

일본이 항복한 후 안디 아지스는 일본 본토에 설치된 연합군 사령부에 합류하거나 인도네시아 보직을 받거나 양자간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얻는다. 그것은 이후 그의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결

정이었지만 아지스 본인은 자각하지 못한 채 쉽게 인도네시아행을 결정했다. 이미 11년째 부모를 떠나 있었던 그는 고향 마카사르에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영국군의 일원으로서 1946년 1월 19일 자카르타에 착륙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독립선언이 낭독된 지 5개월째로 접어들던 시점이었다.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인도네시아 땅을 밟는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적이 되어 돌아왔다는 의미임을 아지스가 몰랐을 리 없다.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찌와 일본제국을 무릎꿇린 연합군에게 신생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의 급조된 공화국군 BKR이나 TKR 정도는 상대도 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그가 도착하기 불과 두 달 전 영국군과 공화국군이 서로 대대적으로 맞붙었던 수라바야에서 공화국군은 예상했던 대로 궤멸적 패배를 기록하고 한 바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바로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연합군 측의 군인이었다.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그는 영국군 분대장이 되어 나중에 찰린딩으로 근무지를 옮기지만 1947년에 비로소 장기휴가를 얻어 마카사르에 갔다가 차체에 군복을 벗기로 결심한다. 아지스는 전쟁터를 이미 신물나도록 돌아다녔다고 생각했고 당시 자바와 수마트라에서 벌어지고 있던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은 자바인들의 전쟁이지 부기스인인 그와는 관계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게다가 연합군 출신인

그는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보다 연합군 소속인 네덜란드 편에 심정적으로 좀 더 가까웠다. 그러나 영국군복을 벗은 그는 고향에 놀러 앉지 않고 당시 네덜란드 점령지였던 자카르타로 돌아와 멘렝뿔로에서 경찰교육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가 1947년 중반 다시 KNIL로 소집되어 소위계급을 달게 된다. 이번엔 네덜란드군이 된 것이다. 순해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그는 천상 군인 체질이었던 모양이다. 이때에도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변함없었다. 수카르노 정부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벌이는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었고 강력한 네덜란드군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고야 말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일본군 장교신분으로 만주에서 독립군부대를 때려잡던 박정희나 간도특설대의 백선엽처럼 네덜란드군 장교로서 남부 술라웨시에서 준동하는 공화국군 게릴라들과 전투를 벌였고 때로는 습격해 섬멸시키기도 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는 네덜란드의 패배나 철수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대한 소속감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그는 동인도네시아 자치주(NIT) 수꼬와띠 대통령의 고위경호원으로 1년 반을 일한 후 이번엔 1948년 반동 찌마히 지역의 SSOP 부대(KNIL 소속의 공수부대 훈련소)에 교관으로 일하게 된다. 이때 찌마히 지역은 당시 임박한 네덜란드군의 2차 총공세(끄라이 작전)를 준비하며 네덜란드군이 대규모로 집결해 있던 곳이었었는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와 공정대인 레드베레도 와있었다. 아지스는 유럽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들 특수부대의 훈련을 담당했다. 그렇게 특수부대를 조련한 그는 결과적으로 족자를 함락시킨 네덜란드군의 끄라이작전 성공에 일조한 셈이었다.

그해 아지스는 다시 마카사르로 발령이 나 중위계급장을 달고 125명의 부하를 거느린 중대장이 된다. 곧 이어 대위로 진급한 후에도 그는 같은 부



KNIL은 1830년 조직되어 1950년에 해산되었다.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인 지휘관과 인도네시아인 병사들로 구성되었고 암본출신 병사들은 KNIL 부대복무를 영예롭게 생각했다.

대를 지휘했는데 이들은 전투경험이 풍부했고 전투력도 일반적인 네덜란드군이나 인도네시아 정규군에 비교할 수 없을만큼 높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아지스는 어떤 적이라도 무찌를 자신감이 있었고 네덜란드군의 가공할 화력 지원이 그의 부대를 받쳐주고 있었다. 언젠가 네덜란드군이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하고 그 화력지원도 사라지는 날이 오리라고는 당연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1949년 12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합주국에 주권을 이양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아지스 뿐만 아니라 KNIL 부대에 소속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병사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에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KNIL은 엄밀히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의 정부군이었지만 지휘체계의 네덜란드인 장교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인도네시아인 병사들로 구성되었고 그들은 독립전쟁 내내 네덜란드 본국에서 파견된 왕립 네덜란드군과 한편이 되어 공화국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다. 그런데 이제 동인도제도의 대부분 지역들이 자치주가 되어 인도네시아 합주국에 합류하고 KNIL 부대도 합주국군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 수년간 전쟁을 통해 쌓인 원한을 풀 여유도 주지 않고서 말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동인도제도를 침공한 일본이 네덜란드군을 격파하여 동인도제도의 KNIL 부대는 사실상 와해되어 버린 상태에서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을 맞았을 때 전역상태에 있던 우립 수

모하르쵸 장군이나 나수티온 대령, 시마뚜빵 대령 같은 KNIL 출신 장사병들 상당수가 공화국군에 참여했지만 또 다른 많은 수는 그 이후 상륙한 네덜란드군이 재편한 KNIL 부대에 복귀했고 네덜란드군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신병들도 대거 새로 모집된 상태였다.

주권이양 이후 KNIL의 인도네시아인 부대원들은 앞으로의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철수하는 네덜란드군을 따라 인도네시아를 떠나지 않는한 그간 네덜란드군의 일원으로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공화국에 적대행위를 한 것에 대해 린치를 당하거나 심지어 군법회의를 통해 처형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렸다. 더욱이 나찌와 일본을 상대로 싸우고 돌아온 연합군 전쟁영웅 아지즈에겐 사실상 공화국군으로의 편입을 선택할 여지조차 없었는데 말이다. 합병되는 공화국군 지휘관들의 사상과 성향이 서로 다른 것도 문제였다. 합주국군과 KNIL 부대원들 사이에서 상대방의 지휘체계를 따르는 것에 대한 반감이 여러 부분에서 충돌했는데 네덜란드 영향이 강한 지방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컸다. 아지스의 남부 술라웨시도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1950년에 남부 술라웨시와 마카사르에선 4월 안디 아지스의 반란을 포함해 1950년 5월 15, 8월 5일 등 세 번에 걸쳐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게 된다. 이 세 번의 사건 모두 KNIL 부대원들이 가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이었다. 주민들의 보복도 그들이 가진 두

려움 중 하나였다. 마카사르 도시주민들이 자치주 체제보다 통일된 인도네시아를 선호하며 수카르노 정부를 지지해왔는데 그간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던 KNIL 부대원들은 대체로 주둔지의 일반주민들에게 안하무인으로 대하며 살아왔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주민들의 이러한 성향은 동인도네시아(NIT)뿐만 아니라 동부자바, 빠순단, 동부수마트라 등 여러 자치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임박한 합주군 군대의 마카사르 입성에 대해 자치주 정치가들과 관료들이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며 긴장국면을 조장한 정황도 엿이는데 주민들과 군인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 자치주 정권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다. 안디 아지스의 반란 배후에도 반합주군 인사들의 선동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안디 아지스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흠잡을 데 없는 군인이라는 평을 들었으나 그가 일

한편 자카르타의 합주국 정부는 동인도네시아를 합병할 목적으로 연합부대를 만들었는데 동부, 중부, 서부자바에서 차출한 육군 대대들이 주력을 이루었고 합주국 공군과 해군, 경찰의 지원을 받았다. 이 부대의 사령관은 북부 수마트라 사령관인 알렉스 에버트 까윌라랑 대령이 맡았다.

아지스의 부대는 1950년 4월부터 8월까지 마카사르에서 벌어진 반란의 주력부대가 되었다. 아지스가 내세운 반란목적은 동인도네시아 자치주를 현상유지 한다는 것이었다. NIT가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흡수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현지 KNIL 부대가 합주국군으로 편입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베스틸링의 APRA 반란은 특수부대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안디 아지스의 반란은 특수부대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 KNIL 부대 전반을 포괄하고 있었다.

1950년 4월 5일, 안디 아지스의 부대가 마카사르의 주요거점들을 공격해 점령하고 지역사령관 A.J.모꼬긴타 중령을 체포하면서 반란이 시작되었다.

타이밍을 뺏긴 합주국군은 주력부대가 출발을 준비하는 동안 위랑 대대가 선발대로 1950년 4월 11일 남부 술라웨시에 도착했다. 위랑 대대는 항구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아 마카사르에 직접 상륙하지 못하고 약 100km 남쪽의 예네뿐또에 상륙했는데 그곳 주민들이 그들을 환영하던 사진이 1950년 5월 13일자 머르데카 잡지에 실려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세 명의 합주국 병사들이 모여있는 주민들 앞을 지나가는데 주민들 뒤로 ‘우리들의 군대, 환영합니다’ (SELAMAT DATANG TENTARA KITA)라는 현수막이 걸린 사진이었다. 남부 술라웨시 주민들은 진심으로 합주국군의 상륙을 환영하고 있었다.

까윌라랑 대령



으킨 반란사건을 보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아지스는 남의 장단에 춤춘 꼭둑각시에 불과했다. 실제로 마카사르 시내의 KNIL 병력을 조종한 것은 안디 아지스가 아니라 네덜란드군 사령관 숏보그 대령과 동부인도네시아 자치주 검찰총장 수모킬 박사였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2019년 12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美 조사 기관 “인도네시아, 동남아 전자화폐 이용 견인할 것”



미국 글로벌 시장분석기관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는 최근 발표한 조사 보고서 ‘2019 동남아시아 전자화폐 시장 보고서’ 에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의 전자화폐 이용을 견인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 건수는 지난해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비은행계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남아 전자화폐 이용에 있어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도네시아의 국내 전자화폐 계좌 수는 1억 6,720만 계좌에 달하며, 이 중 비은행계가 1억 770만 계좌였다.

지난해 거래 건수는 20억 건 이상에 이르러 동남아시아 전체 거래량의 약 20%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배차 앱 대기업 고젝과 싱가포르계 그랩이 전자화폐 분야에서도 세력을 늘리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의 핀테크 담당 산빠스 애널리스트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자화폐 이용자가 지난 2017년 10% 이하에서 2018년에는 36%로 크게 확대됐다” 고 설명했다.

그는 “배차 앱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자화폐 거래가 앞으로도 동남아시아에서 시장 점유율을 넓혀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23만명 사망 '인도양 쓰나미' 15주기... 생존자들, 경험 공유

26일은 23만명이 사망한 '2004년 인도네시아 아체주 9.1 강진' 발생 15주기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재난 중 하나로 꼽히는 '인도양 쓰나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당시 기억을 잊으려야 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2004년 12월 26일 오전 8시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의 반다아체 앞바다 해저에서 초대형 강진이 발생했다.

최고 높이 30m에 이르는 쓰나미가 수마트라섬 서부해안은 물론 스리랑카,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인도양 연안 12개국을 강타했다. 쓰나미는 7시간 넘게 인도양을 가로질러 동아프리카 일부까지 황폐화됐다.

당시는 쓰나미 조기 경보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해안에 있던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만 17만여명이 사망(이하 실종자 포함)했고, 스리랑카에서 3만5천여명, 인도 1만6천여명, 태국에서 8천200여명이 숨졌다.

당시 태국의 푸켓 등 동남아 해변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휴가를 보내던 외국 관광객이 많았기에 한국인 18명을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숨졌다.

반다아체 주민 아리프 무난다(49)는 2004년 당시 쓰나미가 마을을 쓸고 간 지 나흘 만에 시체가 방 안에서 정신을 차렸다. 그는 아내와 세 자녀 등 24명의 가족을 잃었다.

무난다는 22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상자 수를 최소화하려면 조

기 경보시스템 구축이 최우선"이라며 "쓰나미 경보시스템을 잘 유지하는 것이 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후 아체주의 재난당국 무선통신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6년 동안 구호캠프에서 생활하다 새 주택으로 이사했고,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해 자녀도 두 명 두고 있다.

아체주 쓰나미 박물관에서 가이드로 일하는 아밀라 안티 또한 쓰나미 생존자이다.

안티는 "당시 부모님과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쓰나미가 덮쳤다"며 "나와 부모님은 살아 남았지만, 자매 2명은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쓰나미의 트라우마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에 쓰나미 박물관에 찾아온 관람객들에게 내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절대 (그 사건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쓰나미 피해 보존구역에서 기념품을 파는 문디아 빈티 샤한(70)은 "나는 항상 쓰나미를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해안 가까운 곳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그냥 도망가라고 가르친다"고 말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참사 이후 28개국이 4억 달러(4천644억원) 이상을 투입해 인도양에 쓰나미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작년 9월 28일 술라웨시섬 빨루 지진으로 6m에 달하는 쓰나미가 도시를 덮쳐 4천300여명이 숨졌다.

같은 해 12월 22일에는 화산 경사면 붕괴로 높이 5m의 쓰나미가 자바섬 반뜰과 수마트라섬 람뽕 해안을 덮쳐 400여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인니 국책은행, 연말 인출 준비금 축소…현금 없는 사회로

인도네시아가 온라인·모바일 전자 결제 확산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17일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2천만명이 이용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국책은행 만다리은행이 연말·연초 예금인출에 대비한 현금을 지난해 33조6천억 루피아(2조8천22억원)에서 올해 33조5천억 루피아(2조7천939억원)로 축소했다.

만다리은행은 이달 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조1천억 루피아(917억원)가 인출될 수 있도록 현금을 준비했다.

연말·연초에는 고향 방문을 위한 기차표·항공권 구매, 선물 구매, 외식 등에 예금 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현금 준비금을 26% 늘린 것이다.

준비한 현금의 85%는 전국의 만다리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 1만8천여대에, 나머지 15%는 은행지점에 배정됐다.

만다리은행은 올해 크리스마스 연휴에 초당 2천464건, 12월 31일에는 초당 2천775건의 은행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평상시에는 초당 평균 803건~1천건의 거래가 이뤄진다.

헤리 구나르디 만다리은행 상무는 “요즘에는 현금결제가 점점 줄고 있다”며 “고객들이 온라인 은행서비스나 ATM기를 통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는 최근 2~3년 사이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전자지갑 앱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스마트폰에 오보(OVO), 고-페이(Go-pay), 링크아자(Linkaja), 다나(DANA) 등 전자 결제 앱을 깔고 금액을 충전해 두면, 식당 등 상점 이용부터 음식배달, 택시비까지 현금 없이 모두 결제 가능하다.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디지털’과 ‘스마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인터넷 사용 인구도 2008년 2천500만명에서 2018년 1억7천120만명으로 늘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1만7천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국가인 만큼 대도시를 벗어나면 전자지갑 앱 사용은 커녕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수도룩하다. 성인 인구의 계좌보유율은 40% 안팎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투자조정청, 민관 협력으로 토지 정보 시스템 개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토지정보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PPP) 차원에서 투자를 유치한다고 밝혔다. 2025년 전국의 모든 토지에 토지 증서를 발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투자조정청은 사업비로 10조 7,000억 루피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의 토양 정보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유지 보수 및 문서 디지털화 등을 실시한다.

한편, 투자조정청은 지난 17일 국내외 약 50개사가 참가한 의견 교류 행사를 열었다. 투자조정청의 익마르 루크만 국장(투자 계획 담당)은 “정보 기술과 은행, 금융 기관, 컨설팅 등 기업과 업계 단체의 관심이 높다”고 말하며 “(시스템 현대화에) 시민이나 사업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토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라고 덧붙였다.

인니 중앙은행, 내년부터 외화 수출입액의 보고 의무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지난 4일 2020년 1월부터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비 천연 자원 거래에 대해 외화 결제 금액을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외화의 흐름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금융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입 외화 결제에 관한 중앙은행령 ‘2019년 21/14호’를 11월 29일자로 시행했다. 2021년부터는 보고 의무를 게을리한 기업의 수입 절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된 외화는 현재 국내 외국환 은행을 통해 보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외환정

보특별모니터링시스템(SiMoDIS)을 통해 중앙은행에 직접 보고할 필요가 있다.

광업 및 팜오일 등 천연 자원의 수출 사업에서 얻은 외화 수익도 2021년 1월부터 SiMoDIS를 통한 보고를 요구한다. 또한 1월에 공포된 시행령 ‘2019년 제1호’를 보완하는 형태로 국내 은행의 전용 계좌에 입금하도록 의무화했다.





Ling Ling Restaurant (Senopati)

글: 주윤지 (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24~26일은 한국 설날인데요~인도네시아에서도 Chinese New Year (Imlek)를 기념하기 위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죠. 하지만 올해는 안타깝게도 1월 25일은 토요일ㅠㅠ 보통 인도네시아 화교들은 설날 때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어른이 Angpao(세뱃돈)를 어린아이부터 미혼 성인까지 나눠 주곤 합니다. 설날 때는 특별히 Yu Sheng, Eight Treasure Soup 등을 먹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설날 연휴 때쯤 고급 쇼펴몰들에 입점되어 있는 Din Tai Fung, The Duck King, Paradise Dynasty, Cristal Jade Palace Restaurant 등 프랜차이즈형 중식당에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쇼펴몰에서 쉽게 접하셨던 프랜차이즈 중식당이 아닌 새로운 중식당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맛있는 중식당들은 북부 자카르타 Mangga Besar, Kota Tua 지역 등에 있는데요... 거긴 너무 멀죠?ㅠㅠ 짜잔~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한국 식당 밀집 Woltermonginsidi 지역 근처에 있는 중식당인 Ling Ling Restaurant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곳은 딤섬 전문점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1시까지 영업한다는 사실! 자~이제 이곳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제일 먼저 Crispy Aromatic Duck (90,000루피아++)을 추천합니다! 매우 가성비가 좋은 메뉴입니다. 밀전병에 오리고기와 야채를 말아 소스에 찍어먹는 음식인데요~ 오리고기가 튀어나게 부드럽거나 맛있지는 않지만 타 중식당에서는 이 가격으로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지요. 저렴한 가격대비 양이 좀 있는 편입니다. 꿀팁으로 밀전병은 무료로 한 번 리필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딤섬 메뉴들을 살펴볼까요? Prawn&Beancurd Cheung Fan (37,000루피아++)은 식빵 튀김과 새우가 들어 있는 Rice Noodle Roll(Cheung Fan) 중의 하나로

연한 달달한 간장소스에 찍어 먹는 음식입니다. 보통은 식빵 튀김 또는 새우만 각각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식당에서는 두 가지 내용물이 들어 있어 맛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바삭한 식빵 튀김과 오동통통한 새우살이 잘 어우러져 맛있고 식감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Three-Style Mushroom Cheung Fan, Prawn Cheung Fan, Chicken Char Su Cheung Fan, Beef&Enoki Mushroom Cheung Fan 등이 있으니 기호에 따라서 골라서 드실 수 있습니다.

Giant Xiao Long Bao (30,000루피아++)는 말그대로 빅사이즈의 샤오롱바오로 덩섬 안에 따뜻한 국물이 넘쳐 흐릅니다. 보통 중식당에서는 일반 사이즈의 샤오롱바오만 판매하는데 이 곳에서는 특별히 빅사이즈의 샤오롱바오를 맛 볼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이 덩섬은 따뜻할 때 먹어야 제 맛입니다.

Short Rib Dumpling (35,000루피아++)은 구운 갈비만두인데요. 중국 스타일로 한쪽은 바삭 구워지고 다른 한쪽은 촉촉하게 찌져 별미입니다. 아무래도 만두소가 갈비라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Salted Egg Custard Bun (35,000루피아++)은 호빵 안에 짭조름한 달걀 노른자 국물이 들어 있습니다. 한때 Salted Egg소스가 거의 모든 음식에 곁들일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덩섬도 예외는 아니었나 봅니다. 색다른 호빵 맛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Taro Croquette (35,000루피아++)은 토란(Taro) 튀김음식인데요. 튀김음식이라 다소 느끼할 것 같지만 튀김옷이 바삭바삭하여 생각보다 그리 느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튀김 맛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기존의 프랜차이즈 덩섬식당이 지겨우시거나 밤늦게 덩섬이 드시고 싶을 때 Ling Ling Restaurant에서 한 끼 어떠세요? 이 식당 바로 맞은 편에 젤라또 맛집(Honest Spoon)과 커피 맛집(Kopi Kalyan, Ombe Kofie)도 있으니 덩섬 드시고 디저트도 함께 즐기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뵈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 Ling Ling Restaurant>

음식 종류 : 중식
 가격대 : Rp 4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목 08:00~23:00 / 금
 08:00~01:00 / 토
 07:00~01:00 / 일
 07:00~23:00
 전화번호 : 021-2793-9069
 위치 : Jl.Cikajang No. 72
 Jakarta Selatan

※ Zomato 참고

자신만의 행복을 새롭게 가꾸는 한해가 되기를

서미숙 / 수필가, 시인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장)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은 자카르타에서도 꽤 오래되고 역사 깊은 고즈넉한 주택가라고 한다. 인도네시아 전통 가옥은 물론 세련된 현대식 건물형식의 큼지막한 집들은 나무가 숲을 이룬 듯 울창한 정원들이 즐비하다. 그래서인지 파티문화를 즐기는 인도네시아 부유층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이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해를 마무리하는 폭죽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환호성과 축제소리가 요란하다.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그동안의 고요한 정적을 깨고 아파트 긴 창 너머로 멀리서 개 짖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려온다. 밀린 연말의 원고들로 며칠 밤을 잠을 설친 탓도 있지만 웬일인지 어제는 귓가에 소음들이 자장가처럼 들려온다.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자리에 든 것 같다. 신기하게도 나만의 긍정마법이 통

했나보다. 새해 운을 좋게 가지려면 스스로 긍정하고 밝아져야 한다고 어느 책속에서 읽은 기억 때문일까, 꿈보다 해몽을 좋다고 어찌면 자신만의 행복을 가꾸는 새로운 해법인지도 모르겠다.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도 정겨운 풍경화처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해에는 우선 자신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배려하고 혜택을 주는 그런 여유 있는 날들로 채워보면 어떨까? 바쁘게 사느라 지쳐있는 마음에 산소 같은 쉼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가령, 하늘의 별을 자주 바라보기, 내 마음을 가만히 노크하며 토닥여주기, 초록 숲을 자주 바라보며 눈의 피로를 풀어주기, 그리고 끊임없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잃지 않기 등, 생각해보면 이런 소소한 마음의

위안이 어찌면 우리 인생에 더 큰 기적을 만들 어낼지도 모를 일이다. 자신만의 꿈과 희망이 자 라고 있는 행복나무를 매일 점검하고 새롭게 물을 주고 듬뿍 사랑을 안겨주자. 자신이든 주변이 든 사랑이 주는 시너지 효과는 대단한 효과를 발휘한다.

최근에는 이곳 인도네시아는 물론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불황인가보다. 한국에 있는 친구와 메시지를 통해 새해 인사를 나누는데 백화점을 가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 연말연시 분위기를 별로 못 느낀다고 한다. 이곳 자카르타도 별반 다르지 않다.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가 어찌면 삶의 그늘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삶은 집 밖을 한 발짝만 나가도 돈이 필요하고 모든 영역에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공짜는 분명히 존재한다. 한번 찾아보자. 공짜로 맞는 살랑살랑한 바람, 공짜로 바라볼 수 있는 에메랄드빛 하늘, 공짜로 쬐는 햇볕, 황금빛 저녁노을, 마법 같은 흰 눈! 이 모두가 감사하고 황홀하게도 공짜이다. 새해에는 이 공짜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러 우리의 마음을 행복의 숲으로 가득 채워보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상상력과 인생을 살아가는 참다운 용기, 그리고 약간의 돈이 필요할 뿐이다. 돈은 어디까지나 살아가는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통계를 보면 사람은 영혼의 부자가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부자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다고 한다.

물질이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기쁘고 평온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은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상상력인 것 같다. 나눔과 감사 안에서 의미 있게 부를 나누고 사용할 줄 아는 지혜, 만약 그것만 갖춘다면 해도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 선배언니 집을 방문했다. 거실에 들어서니 장미 백 송이에 안개꽃을 듬뿍 넣은 커다란 꽃바구니가 눈에 띄었다.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낸 거유? 너무 부럽네...”

“궁금하면 거기 꽃혀있는 메모지 읽어봐.” 메모지에는 언제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당신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아휴, 아직도 신혼이신가 보네, 낭군님께서 새해에 이렇게 꽃도 보내시고...”

그러나 선배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새해도 다가오고, 나이도 한 살 더 먹으니 괜히 우울해져서 내가 나 자신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면 어떨까 생각했어.” 그래서 근처 꽃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사서 집주소를 적어 자신에게 배달을 부탁했단다. 그랬더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졌다고 선배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순간 내 가슴에 따스한 온기가 햇살처럼 전해져 왔다. 환한 꽃바구니가 선배를 향하여 방긋 웃으며 한 해 동안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나는 순간 가슴이 뭉클





해졌다. 항상 가족과 주변은 부지런히 챙기면서도 정작 내 자신에겐 소홀했다는 생각에 멈추니 현명한 선배에게 인생의 지혜를 한 수 배운 느낌이다.

아침에 일어나 가만히 귀를 열어보니 산새들이 지저귀고 물이 흐르고 태양이 비추인다. 나는 한 아침의 들꽃을 가득안고 밝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 물론 지난밤 꿈 이야기다. 전혀 예상치 못한 꿈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았다. 새해를 앞두고 모처럼 꾸었던 꿈치곤 그럭저럭 괜찮은 꿈이다. 이유는 생각나지 않지만 꿈속에서 기쁘게 웃고 있던 기억이 새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는 것만 같다.

인도네시아 한인역사 100주년을 맞는 쥐띠해인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무슨 일이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서로 공유하는 행복한 한민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서든 행복에너지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공간에 긍정의 마법을 걸어놓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인생을 살다보면 새로운 마음가짐이 때로는 눈부신 울림을 만드는 기적을 가져다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다.

자신에게 삶의 에너지를 주기 위해 매일 짬을 내어 신발을 벗어던진 채로 자신을 위한 춤을 춘다고... 불현 듯 ‘꾸삐씨의 행복여행’에서 마지막 네 가지 글귀가 머리에 떠오른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불행하지도 않으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복카드를 보내고 싶다. 새해에는 더욱 더 열심히 자신만의 행복을 아름답게 가꾸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새해
행복
많이받으세요

현장의 달인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대사 김창범)은 2019년 12월 13일, 대사관 1층 대강당에서 “현장의 달인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분들을 초대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만찬 행사로 산업현장을 지키며 헌신하는 일꾼과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발리 한인회에서 알립니다~

인도네시아 처음으로 한인회관을 2018년 4월 착공하여 2019년 5월 완공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6일 김창범대사님 방문하여 응원의 말씀과 함께 임원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발리한인회 이태우 총무 제공)



한국타이어, JIKS에 장학금 전달

2019년 11월 27일 오전 10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학교장실에서 한국타이어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최석호 한국타이어 인도네시아 법인장, 배도운 학교법인 이사장, 김윤기 학교장 외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10명의 학생들이 한 학기 수업료에 해당하는 472,007,000루피아를 장학금으로 받았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사회 및 주변 이해관계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CSR(사회공헌) 활동을 환경, 보건, 안전, 재능기부, 문화, 교육의 6개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7~18년 각각 약 4억루피아를 장학금으로 JIKS에 기부하였다.

최석호 법인장은 JIKS에 장학금을 기부하게 되어 재인니한인사회의 일원으로서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이 장학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모두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 모두 한국타이어가 더욱 번창하여 장학 사업뿐 아니라 인니 사회에 대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JIKS부설영재센터 『지식 나눔 프로젝트』운영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윤기) 부설 영재교육센터 초·중 45명의 학생들은 지난 11월 30일 친구들과 부모님 100여 명을 초대하여 영재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을 나누어 주는 『지식나눔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일 년 동안 배운 수업내용 중 Math, Science, SW 분야 15개의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연구한 내용을 친구들과 부모님께 설명하고 함께 직접 시연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매지믹서를 이용한 숫자연산 놀이, 퍼즐블록을 이용한 미션해결, 홀로그램 만들기, 친환경 물병 오토만들기, 팝핑보바, 프렉탈 구조 알아보기, 원심분리기 만들기, 스마트 마을 탐험, 머신러닝 등 평소 일반 학생들이 접할 수 없는 흥미롭고 다채로운 활동들로 이루어졌다.

프로젝트를 운영한 4학년 정유나 학생은 “나눔이라는 것이 봉사나 물건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했

는데,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새롭고 흥미롭게 느껴졌다.” 말했다.

초대를 받아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처음 보는 활동들이 많았는데, 특히 자성유체 프

로젝트에서 액체가 자석의 성질을 갖을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배울 수 있어 정말 흥미로웠다.” 며 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배움과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팀별 프로젝트 탐구활동을 통해 의사소통능력과 공동체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020학년도 영재 학생선발은 1월에 진행하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3학년~8학년 총 45명의 학생을 선발 예정이며 타학교 학생도 응시가능하다.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JIKS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

제 7회 2019년 골프대회 및 송년의 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들이 모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는 재인니 한인청년회 회장 정제의와 옥타자카르타 차세대 대표 신지훈이 주관한 “제 7회 2019년 골프대회 및 송년의 밤” 이 지난 2019년 12월 7일 토요일 땅그랑 모던랜드 골프장에서 열렸다.

이번 인도네시아 최대 한인청년모임인 재인니 한인청년회와 옥타 차세대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행사에는 골프 대회 140명이 참석, 송년의 밤 만찬에 180여명이 참석을 하여 골프대회와 만찬을 통해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며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김종민 총영사, 아세안 대표부 김창년 공사, 박재한 한인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김우재 명예회장, 옥타 자카르타 지회장 김종헌회장, 신기업 한인회고문, 이철훈 보고르 한인회장, 배응식 옥타 자카르타 고문, 손한평 한인회 수석부회장, 전민식 인니장애인태권도협회장, 이강현 코참 수석부회장, 이규백 봉제협회부회장, 차상현 아시아나항공지사장 및 인도네시아 Pak An dhika 반뜰 부주지사와 1명, Pak Fahmi 반뜰주 지방의회 부의장, Pak Bayu Japnas 회장의 1명, Pak Pascall Modern Cikande 공단

사장 및 Pak Teguh 버카시 이민국장외 3명 등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골프대회는 A조 우승 김종헌, B조 우승 Pak Gilang, 메달리스트 Pak Erik, A조 1st 최창수, B조 1st 백경훈, 롱기스트 정영호 289M, 니어리스트 유성열 144CM로 시상이 되었다.

한인청년회는 주요활동은 한인회 봉사활동, Maju Satu Langkah(유관기관 네트워크), 한인청년회*옥타차세대 골프대회 및 송년의 밤, UI*UPH 및 대학생지원 및 멘토링 활동, 인도네시아 청년단체들과 교류 및 협력 등등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옥타 차세대의 주요 활동은 무역스쿨(무역생도 발굴), 명사초청강연회, 차세대들간 네트워크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재인니한인청년회 정제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시고 각자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젊은 청년들, 2019년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네트워크와 승승장구하여 2020년 더 발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 말했다. 옥타 차세대위원회 신지훈 대표는 “인도네시아 지회의 회원들과의 단합과 연결 뿐 아니라, 전세계 있는 차세대 OKTA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세계로 나아가는 활동의 기회를 열어가겠다.” 고 강조했다.





나는 바하사로 수다떠다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경자(庚子)년, 백서(白鼠, ‘흰쥐’)의 해가 왔어요. 인니어로 ‘쥐의 해’라고 간단히 Tahun Tikus 또는 Tahun Shio Tikus라고 표현해요(Shio = 띠). 경자년이 오행상으로 금(金)과 수(水)를 나타내서, Tahun Shio Tikus Logam (logam 쇠, 금속)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새해에는 어떤 행운(hoki)과 놀라운 일들이(kejutan) 찾아올까요? 이번 호에서는 띠별 특징에 대해 인니어로 공부해 볼 텐데요, 2020년 새해를 맞아 쓸 수 있는 표현을 공부해 볼까 해요. 인니어로 수다떠는 그날까지 연말에도 열공~! 띠별 운세(ramalan shio)

❶ 쥐띠의 특징(1948, 1960, 1972, 1984, 1996, 2008년생)

- ㉠ 사회성이 좋다,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punya kepribadian sosial, supel)
- ㉡ 유머러스하다(lucu)
- ㉢ 똑똑하다(pintar)
- ㉣ 매력적이다(memesona)
- ㉤ 적응력이 좋다(mudah beradaptasi)
- ㉥ 마음 씀씀이가 좋다(murah hati)
- ㉦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다(menyenangkan)
- ㉧ 부지런하다(rajin), 쉴새 없이 움직임(가만히 있지 못함, tidak bisa diam)
- ㉨ 끈기가 있다(ulet = tidak mudah putus asa)
- ㉩ 참을성이 대단하다(penyabar ‘잘 참는 사람’)
- ㉪ 저축을 잘한다(pintar menabung)
- ㉫ 자기밖에 모르는 편이다(cenderung mementingkan diri sendiri)



Karakter-karakter di atas benar enggak ya menurut teman-teman yang bershio tikus? 쥐띠 여러분들 맞는 것 같으세요?

❶ 쥐띠들에게 행운을 드립니다

- 행운의 수(angka keberuntungan shio tikus) : 2, 3
- 행운의 색(warna keberuntungan shio tikus) : biru, emas, hijau(파란색, 금색, 녹색)
- 행운의 꽃(bunga keberuntungan shio tikus) : lily(백합), african violet(아프리카제비꽃)
- 행운의 방향(arah keberuntungan shio tikus) : barat laut(북서), barat(서쪽), barat dayat(남서)
- 행운의 달(bulan keberuntungan shio tikus) : 음력으로(imlek) Oktober, November, Desember
- 음양 (elemen Yin dan Yang) : 양(Yang)

Karakter 12 Shio Binatang (12가지 띠의 성격)

(sumber : <http://norma07dp.wordpress.com/karakter-dan-sifat-dari-12-shio/>)

<p>쥐띠 Shio Tikus 1960,1972,1984,1996, 2008</p>	<p>Cerdik, mampu beradaptasi dan menggemari tantangan. 머리가 좋고(이해력이 빠르고) 빨리 적응할 수 있으며 도전과제를 받긴다.</p>
<p>소띠 Shio Kerbau 1961,1973,1985,1997, 2009</p>	<p>Orang bershio Kerbau mencapai tujuannya lewat kegigihan dan dedikasinya yang luar biasa. 엄청난 끈기와 헌신으로 목표를 달성한다.</p>
<p>호랑이띠 Shio Macan 1950,1962,1975,1986, 1998,2010</p>	<p>Macan adalah pribadi yang luar biasa optimis yang akan selalu siap kembali untuk tantangan baru. 호랑이는 매우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길 때 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p>
<p>토끼띠 Shio Kelinci 1951,1963,1975,1987, 1999,2011</p>	<p>Kelinci punya watak yang diperlukan bagi diplomat yang sukses, atau politikus yang piawai. 성공한 외교관이나 노련한 정치인에게 필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p>
<p>용띠 Shio Naga 1940,1952,1964,1976, 1988,2000</p>	<p>Naga biasanya super positif dan sangat terbuka. Sulit baginya berpura-pura memperlihatkan emosi yang saat itu tidak dirasakannya. 대체적으로 매우 낙관적이고 오픈마인드이다. 거짓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자신이 느끼지 않은 감정을 가짜로 보여주는 게 어렵다).</p>
<p>뱀띠 Shio Ular 1941,1953,1965,1977, 1989,2001</p>	<p>Orang bershio ular terkenal sebagai pacar yang romantis namun juga sering diberi julukan 'mata keranjang'. 뱀띠들은 로맨틱한 연인으로 인기가 있지만, (특히 남자의 경우) 여자를 밝힌다는 별명도 자주 듣는다(mata keranjang : sangat suka pada perempuan).</p>
<p>말띠 Shio Kuda 1942,1954,1966,1978, 1990,2002</p>	<p>Kuda berjiwa petualang. Kuda kerap mempunyai jam-jam kerja yang tidak menentu. Kalau sedang mendapat ide, ia bisa bekerja siang-malam tanpa makan dan tidur. Sebaliknya, kalau kebetulan sedang tidak banyak pekerjaan di kantor, ia tidak segan-segan melarikan diri untuk bersenang-senang. 말은 방랑객의 영혼을 갖고 있다(역마살이 있다)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가 많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잠도 자지 않고 밤낮으로(siang-malam) 일할 수도 있지만 사무실에서 일이 많이 없을 땐 밖에 나가 노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p>





<p>양띠 Shio Kambing 1943,1955,1967,1979, 1991,2003</p>	<p>Dewi Fortuna akan selalu memamerkan senyumnya yang menawan kepada kambing karena kepolosan dan kebaikan hatinya. Orang bershio kambing lebih suka mengekor (manut) atau mengeluh kalau segalanya tidak sesuai dengan yang diharapkan.</p> <p>행운의 여신은 순수하고 마음이 착한 양띠들에게 항상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 보일 것이다. 양띠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도 잘한다.</p>
<p>원숭이띠 Shio Monyet 1944,1956,1968,1980, 1992,2004</p>	<p>Monyet mampu memecahkan masalah yang ruwet-ruwet dengan gampang dan dapat belajar dengan cepat. Oleh karena Monyet pandai mendapatkan apa yang diinginkannya tanpa susah-payah, maka ia cenderung cepat bosan dan kurang menghargai apa yang sudah dimilikinya. Ia percaya sepenuhnya pada kemampuannya.</p> <p>원숭이들은 복잡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 빨리 배운다. 원숭이는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잘 얻을 수 있다 보니 지루함을 빨리 느끼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를 때도 있다. 자신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다.</p>
<p>닭띠 Shio Ayam 1945,1957,1969,1981, 1993,2005</p>	<p>Jarang ada warga Ayam yang menghamburkan uang di luar batas kecuali hal itu dilakukan demi gengsi. Orang bershio Ayam pandai mengatur segala sesuatu, termasuk waktunya sendiri dan waktu orang lain.</p> <p>체면 때문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면 닭띠들이 돈을 마구 쓰는 일은 거의 없다. 닭띠들은 자신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등 모든 것을 잘 관리한다.</p>
<p>개띠 Shio Anjing 1946,1958,1970,1982, 1994,2006</p>	<p>Secara umum, warga Anjing adalah manusia yang tidak materialistis. Dia lebih suka pembicaraan dan gaya hidup yang tidak dibuat-buat.</p> <p>일반적으로 개띠들은 돈을 밝히지 않는다(검소한편이다). 개띠들은 일부러 만들지 않은-즉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대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한다.</p>
<p>돼지띠 Shio Babi 1947,1959,1971,1983, 1995,2007</p>	<p>Kepercayaan orang terhadap dirinya dan ketulusannya adalah kelebihan yang utama. Sudah jadi rahasia umum, Babi dan duitnya gampang dipisahkan. Babji juga lekat terhadap pepatah "Milikku adalah milik Anda juga, dan milik Anda adalah milikku juga". Kelemahannya adalah ketidaksanggupan untuk berkata 'tidak' dengan tegas.</p> <p>돼지띠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신뢰와 돼지가 갖고 있는 진정성이다. 돼지가 돈과는 인연이 없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돼지와 돈은 쉽게 분리된다-즉 돈과는 인연이 없다). "내게 니거고 니게 내거지 ~"이런 말과 뿔래야 뿔 수 없는 돼지띠. 돼지띠의 단점은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말을 못한다는 것이다.</p>

바하사로 수다떨기

- ① 나는 쥐띠이다. 나는 쥐의 해에 태어났다.
Shio saya tikus. Saya lahir pada tahun tikus. Saya kelahiran tahun tikus.
- ② Lee : Di Indonesia ada enggak orang yang bisa meramal?
Santi : Ada. Kami menyebutnya 'orang pintar' .
리 : 인도네시아에 점쟁이(점치는 사람) 같은 거 있어?
산티 : 있어. 우리는 orang pintar 라고 해.
- ③ Santi : Orang Korea percaya ramalan tahun baru, ya?
Sani : Ada yang percaya. Ada yang enggak. Kalau aku sih suka baca ramalanku.
Iseng aja.
산티 : 한국 사람들은 신년 운세 믿나 봐?
사니 :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나는 내 운세 읽어보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재미로.
- ④ Ando : Apa resolusiimu di tahun baru?
Sani : Apa ya....? Aku belum mikirin sih.. Resolusimu apa?
Ando : Ya... tahun ini aku mau nikah.
Sani : Udah ada cowok?
Ando : Belumlah. Aku mau cari tahun ini. hahaha.
Sani : Semoga kamu dapat jodoh tahun ini ya! Amin....
안도 : 새해 계획이 뭐야?
사니 : 음... 뭘까나...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넌 뭘데?
안도 : 올해는 결혼해야지...
사니 : 결혼할 사람 있어?
안도 : 아직 없지. 찾아야지. 하하하
사니 : 올해는 꼭 소울메이트를 찾길....아멘~



❀❀ 새해 인사 이렇게 해 보세요 ❀❀

▷ Selamat tahun baru. Semoga tahun ini penuh kebahagiaan, kesenangan, kesehatan, kesuksesan, dan kedamaian.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 기쁨, 건강, 성공과 평화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 Saya berharap tahun ini senyuman sumringah selalu hadir di keluarga Bapak/Ibu. (가족에게 항상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인니어가 궁금하면? 여기로 nusantara817@daum.net

꼭 해야 하는 일

글: 김근수 / 버카시 거주



몇 년 전 어느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식사를 하고 소파에 누워 여유롭게 미드 한편 보고 있는데, 딸아이 책가방을 확인 하던 아내가 버럭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너 엄마가 숙제 먼저 하라고 했지? 왜 안 했어 또? 같은 말을 도대체 몇 번씩 해야 해? 안 되겠다. 너 오늘 매 좀 맞아야겠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맞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드라마 한편 보고 하루를 아름답게 마감하고 싶었는데, 결국 일이 터집니다. 수 차례 감정 섞인 체벌이 끝나고, 아내는 저에게도 소리칩니다.

“당신이 좀 한마디 제대로 해봐요. 때려도 당신이 때리던가. 왜 나만 매일 나쁜 엄마 되야 하는데!”

울 것이 왔습니다. 일곱 살 아이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회사에서 일 잘해 포상 받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무슨 애길 어떻게 해줄까, 눈물이 속 빠지도록 제대로 한 번 매를 댈까? 컨설팅 책에서 수십 번은 본, 일의 경중완급을 판단해 시행 하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7살 아이에게 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잠시 고민 하다가 딸아이를 불렀습니다.

“아빠한테 와 봐.”

아이가 엄마 눈을 피해 제 옆에 나란히 기대 앉습니다. 숨을 곳이 필요했나 봅니다.

“아빠가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옆구리에 손 딱 붙이고 똑바로 서야지. 차렷!”

아이가 짐짓 놀라는 척 후다닥 내려가서는 제 앞에 섭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쥐고 허리 옆에 딱 붙여주세요.

“손 이리 쥐봐.”

아이가 곧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눈 옆이 금새 붉어지더니 이내 체념한 듯 두 손을 힘없이 편 채, 제 손위로 올립니다. 손바닥을 맞을 줄 알았나 봅니다.

“한 손만 있으면 돼요.” 하고, 왼손을 내려주고는 아이의 오른손 주먹을 쥐여 내 손 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아빠가 하는 말씀 잘 들어. 이 큰 엄지 손가락은 ‘네가 하고 싶은 일’ 이고, 검지 손가락은 ‘꼭 해야 하는 일’, 가운데 손가락은 ‘이걸 하면 너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 이야.” 손가락을 하나씩 펴면서 아이에게 말 해 줍니다.

“자, 그럼 이 세 손가락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아이가 다행스럽게도 망설임 없이 “검지손가락,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라고 답한다.

“그래 맞아.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아이가 머뭇거리더니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가운데 손가락! 저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에요……”

나름 모범답안을 생각해 낸 모습이 귀여웠다.

“흠, 아빠 생각엔 이 엄지와 중지는 딱히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때그때 다를 테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무슨 일을 먼저 하는 게 좋을 지 엄마에게 물어 보렴.”

대화가 끝나고 복습 차, 세 손가락의 의미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거듭 확인하고 나서야 아이를 침대로 놓아주었습니다. 개학 첫날부터 매를 맞은 것이 안쓰러워 자는 모습을 보려 아이 옆에 살짝 누웠습니다. 잠시 후, 자는 줄 알았던 딸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갑자기 묻습니다.

“아빠는 검지손가락, ‘꼭 해야 하는 일’ 을 안 해서 법인장님한테 혼난 적 없어요?”

순간, 당혹스럽게 몇 가지 기억이 스쳤지만,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해 줍니다.

“아빠는 당연히 꼭 해야 하는 일을 제일 먼저 처리하지.”

아이가 아빠가 믿음직해 보였는지 반달처럼 눈웃음을 지은 뒤 잠이 듭니다.

아이는 어느새 훌쩍 커서 곧 열네 살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숙제 때문에 엄마에게 항상 혼나는 게 일상이지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가끔씩 숙제를 봐주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가 보는 책이 너무 어려워져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러질 못 합니다. 그렇다고 생활의 지혜니 삶의 자세니 운운하며 예전처럼 아이 손을 잡았다간 곧 사춘기에 들어서는 아이가 징그럽다며 손사래를 칠 게 뻔 합니다. 아이가 커오는 동안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더 많이 함께 해주지 못 한 시간이 늘 미안했는데, 얼마 후면 이 짧은 대화도 힘든 시기가 오겠지요.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아이에겐 동생이 있거든요. 터울이 제법 지는 둘째는 아직 유치원 가는 게 마냥 즐거운 여섯 살인데, 내년엔 학교 숙제가 늘어날 때쯤 작은 아이의 손가락도 하나씩 펴 줄 기회가 올 테니까요.

자유기고 모집

한인뉴스에서는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분들의 자유기고, 그림, 만화 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 madonnaj202@gmail.com / 081-111-7230

나무 위에서 자유를 외치다

Kopeng Treetop Leadership Camp 체험기



인서연(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 Semarang/G9)



2019년 9월 23일부터 2박 3일 동안 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 Semarang 에서는 Kopeng Treetop, Salatiga로 Leadership Camp를 갔습니다. 2살 때부터 버카시에서 쪽 살다가 스마랑으로 이사온 지 4개월 남짓 되었고, 전학 온 지 2개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과과는 아직은 어색했지만, Leadership Camp를 통해서 2박 3일 동안 친구들과 여러 가지 게임과 활동을 함께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openg Treetop, Salatiga에서 경험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이제 막 소개하려던 참입니다. Kopeng Treetop에서 경험한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Treetop activity, 두 번째는 Zorbing, 세 번째는 Zip coaster, 네 번째는 ATV 활동입니다.

Treetop activity는 말 그대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연결된 줄을 잡고 나무 다리를 건너는 데 마치 ‘타잔’ 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 저는 여자니 ‘제인’ 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친구는 원숭이처럼 짹 짹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고백하자면, 사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도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두 살 아래 남동생 영광이는 씩씩하게 잘 건너더군요. 아직 어리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프로그램 중에 가장 어렵고 무서운 체험을 잘 해나가는 동생의 모습을 지켜보니 대견했습니다. 비록 첫 번째 미션을 완수할 수는 없었지만, 내년엔 다시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활동 Zorbing은 커다란 공 안에 짝이 된 두 명의 아이들이 들어가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아저씨가 공을 굴러줍니다. 그러면 그 안의 아이들은 공안에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이 굴러

가는 방향으로 테굴테굴 굴러갑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내 몸이 공인지, 공이 내 몸인지... 작은 공간 안에서 공에만 의지해 몸을 맡긴다는 것이 답답하고 불안했지만, 가장 많이 웃고 즐거웠던 활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도전한 Zip coaster는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고 여유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둥글고 커다란 철에 줄이 연결되어 있고, 그 줄 아래 의자가 놓여 있는 장치인데 빙글빙글 돌아가는 의자에 앉아 바람을 쐬며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Kopeng Treetop의 경치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신선 놀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사륜자동차(All Terrain Vehicle; ATV)를 타고 길을 따라 달리며 Kopeng Treetop 구석구석을 탐험했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땅

위에 내려오자 쪼그라들었던 자신감이 퍼지며 정말 신나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활동을 Xandar, Valhalla, Asgard, Wakanda 네 팀으로 나뉘어서 질서 있게 진행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에는 경쾌한 음악을 들으며 캠프파이어를 즐겼습니다. 인도네시아식 꼬치구이 사테와 바비큐를 구워서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Kopeng Treetop은 우리나라 늦가을 날씨처럼 쌀쌀했는데, 엄마가 챙겨준 긴 옷들이 있어서 추위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더위에 익숙해져 있던 나에게 한국의 가을 날씨처럼 선선한 바람도 쌀쌀하게 느껴져 멧쩍은 미소가 떠올랐지만, 이것마저도 Kopeng Treetop에서 쌓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방이 나무와 꽃으로 둘러 쌓인 곳에서 맑은 공기를 담백 마시고 온 덕에 내 마음도 깨끗해진 듯합니다. 마치 엄마의 고향에 가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공기 가득 배어있었습니다.

선물 같았던 2박 3일간의 Leadership Camp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 남매는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집밥’을 먹으면서 신나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여행은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나를 한 뼘 더 자라게 할 다음 여행이 기다려지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코린도 사회공헌재단, 인도네시아 우수 학생에게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



2019년 10월에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5개 대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장학금 전달 목적으로 하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교육 발전을 위한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이 하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급 중이다. 해당 대학교들은 자카르타에 있는 UI, UNAS, UGM, 반둥의 UPI, 그리고 보고르에 있는 IPB이며 1년에 25명에게 총 1,25억 루피아를 지급하고 있다.

코린도 그룹은 한국인이 운영을 하는 회사임으로 UI, UNAS, UGM, UPI는 한국어 학과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IPB는 산림과학부를 대상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되기를 바라며 코린도 장학재단 이순형 사무총장님이 이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였다. “코린도가 인도네시아 교육 발전에 적게나마 일부분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해당 학생들이 장학금을

잘 사용해서 미래의 꿈을 이루는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학생들도 이 장학금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지금도 아직 못 믿겠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은 것이 저한테 대학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번 학기에 만점(4.00)을 이수한 IPB 학생 디티야 파딜라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장학금외에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이 유학 장학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3년부터 유학 장학생이 총 36명이며 학사 및 석사 프로그램도 있었고 한국 연세대 교환 학생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1년에 두명을 UI대학교에서 선발하여 보내고 있고, 2020년 학기에 보낼 학생을 이미 선발하여 한국행 준비를 하고 있다.

(제공:코린도)



윤 솔 (THREE LITTLE ANGELS, KA2)

이 우주의 주인공은
나야 나!

#빛이난다#눈이부시다

#은하수를 따라

#엘사는이미너무커버렸어

#엘사에게없는눈웃음으로세상을

녹이겠어 #동그란별



❤️ 💬 📌 좋아요 1498



해가 바뀌는 것에 장점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인뉴스는 표지디자인을 바꿔보고 새로운 코너도 합류시키고 다수를 향해
어떠냐고 묻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때입니다.

비우고 채우고, 버리고 담으며 정성껏 다듬어 칭찬을 바라는 수줍음으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각과 논리와 직관력으로 편집자는 사람을 움직여야하므로 더 많은 한인동포
들을 알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편집장 홍석영 -

외국인 직원 및 이사회원의 법적 지위(1)

인도네시아는 내국인(인도네시아 국민/Warga Negara Indonesia/WNI)과 외국인(Warga Negara Asing/WNA)을 제도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의 모든 정책이 내국인 절대 우선이다. 투자법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보며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에서도 그렇게 느껴진다. 인도네시아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법적인 신분은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근로자(Pekerja)이거나 사업자(Pengusaha), 둘 중 하나이며,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고용허가통보서(Notifikasi)에 기재되어 있는 직책과 회사의 등기부이다. Notifikasi상 부장(Manager)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이사회원(Direktur) 혹은 감사회원(Komisaris)로 기재되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니고 법적인 신분은 사업자로 구분된다. 외국인 근로자와 회사 간의 관계, 의무와 권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회사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있으나, 이사회원과 감사회원과 회사와의 관계, 의무와 권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주식회사법과 계약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외국인은 드물게 본다.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회사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 없는 배상을 청구하는 내역을 보면 상호 법적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외국인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와, 이사회원과 감사회원과 회사와의 관계, 의무와 권리를 설명한다.

1. 이사회원(Anggota Direksi/Direktur)과 감사회원(Anggota Dewan)

Komisaris/Komisaris)은 근로자(Pekerja)가 아니고 사업자(Pengusaha)이다.

근로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3호(근로기준법) 제1조는 근로자, 사용자(Pemberi Kerja) 및 사

업자(Pengusaha)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1. 근로자란 임금 혹은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으며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근로자란 명령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구성요소를 명령에 의한 노동으로 보고 있다)

1.2. 사용자란 사람을 고용하고 임금 혹은 다른 형태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는 자연인, 사업자,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를 의미한다.

1.3. 사업자란 자신 소유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연인, 공동사업자, 혹은 법인이나,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사업을 운영해주는 자연인, 공동사업자, 법인이거나, 앞에서 설명한 사업체를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연인, 공동사업자 혹은 법인이다.

* 법인, 비법인, 개인, 합명, 합자, 조합, 단체 등의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급여 지불 혹은 다른 형태로 일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영리 사업체, 비영리 사업체, 사회단체, 교육단체, 종교단체 등, 운영자가 있는 단체는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가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리상으로는 근로기준법 준수의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는 사용자인 각 가정의 자의에 달려 있다.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부, 운전기사, 경비원, 정원사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최저 임금, 년가, 해고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 대상이 아니다.

2. 외국인 근로자(Tenaga Kerja Asing/TKA)의 법적지위

외국인 근로자도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나 55세 정년퇴직을 보장받는 무기한부 고용계약(Perjanjian Kerja untuk Waktu Tidak Tertentu/PKWTT) 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시한이 있는 기한부 고용계

약서((Perjanjian Kerja untuk Waktu Tertentu/ PKWT) 근로자이다. 기한부 고용계약이란 시한이 있는 고용계약, 즉, 정한 기한이 차면 고용계약이 종결된다고 약정된 고용계약을 말한다.

2.1. 기한부 고용계약의 특징

2.1.1. 고용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 고용계약 기한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고금, 주택 및 의료 수당 및 장기 근속금 지불 의무가 없다.

2.1.2. 고용계약서에서 합의한 기한 만료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고용 계약 잔존 기간에 대한 급여 전액 배상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근로자가 고용계약 기한 만료 이전에 사직을 하려는 경우에도 계약 잔존 기간의 전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

2.1.3. 기한부 고용계약에는 견습 기간을 불허한다. 무기한부 고용계약에서는 최장 3개월의 견습 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한부고용계약에는 견습 기간 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 3개월은 무기한부 고용계약으로 채용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관찰 후, 3개월이 차기 전에 일단 해고하고, 직원으로 채용이 적당하다고 평가 되면 기한부 고용계약으로 다시 채용하면 법리상으로는 무리가 없다.

2.2. 사용자의 불법행위 혹은 고용계약 위반 이유 고용관계 종결 허가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2.2.1. 사용자가 다음에 열거된 행위 중 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근로자는 산업관계분쟁해결 기구에 고용관계 종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2.1.1. 근로자를 구타하거나, 거친 방법으로 모욕을 주거나, 위협한 경우

2.2.1.2. 근로자에게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경우 2.2.1.3. 급여를 3개월 이상 정해진 일자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2.2.1.4. 근로자와 약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2.1.5. 고용계약서와 다른 일을 하도록 명령한 경우

2.2.1.6. 고용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지 않은 일로 근로자의 생명, 안전, 건강 및 정조를 위협하게 하는 일을 시킨 경우

2.2.2. 상술된 이유로 고용관계 종결이 허가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56조 2항에 규정된 해고금의 2배, 장기 근속금 및 년가 배상, 귀항비 와 해고금과 장기 근속금의 15%에 해당되는 의료비 및 주택비를 지불해야 한다.

2.2.3. 근로자가 고용관계 종결허가 사유로 신청한 상술한 사용자의 행위가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에 의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의 해고허가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해고금 및 장기 근속금에 대한 권리가 상실된다(사용자의 지불의무가 없어진다).

2.3. 장기 와병 사유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가 와병 혹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며 유급 법정 시한 인 12개월이 지나면, 근로자는 고용관계 종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56조 2항 법정 해고금의 2배, 3항 법정 장기 근속금의 2배 및 4항의 제 배상을 받는다.

2.4. 기한부고용계약 상의 사직

기한을 정하고 고용계약을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고용 계약 잔존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회사에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정 사항과 현실적인 처리에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기한부 고용계약에는 해고금, 장기근속금 혹은 송별금의 개념이 없다.

(다음 호에 계속)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한국어 해설 봉사 교육생 과정을 수료하며

글: 유세라

9월의 첫 화요일부터 석달동안, 짧지만 알차게 인도네시아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참 행복했다. 3개월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시간마다 흥미진진한 역사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는데, 선사시대의 자바 원인, 19세기의 독립전쟁의 이야기, 또는 8세기의 신비로운 불교왕국, 13세기의 호탕한 이슬람왕국 등등을 탐험하며 인도네시아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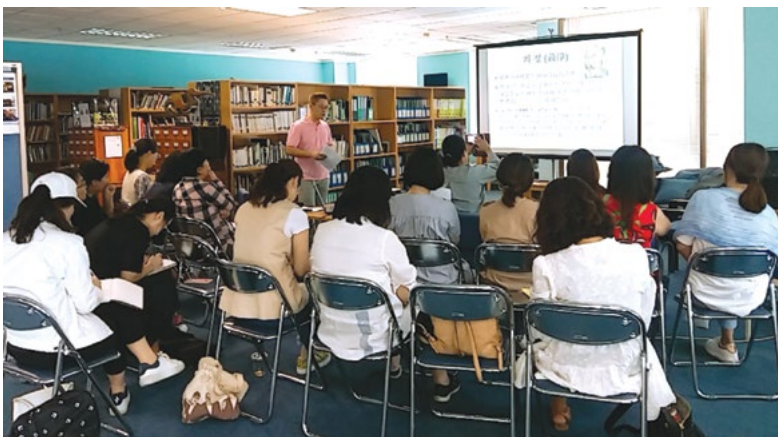
스나얀 한 건물의 17층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도서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쑥스러운 첫 인사속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저마다의 각오들을 다졌다. 거주 기간이 길든 짧은 참가자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인도네시아를 조금 더 제대로 알고 싶어서 왔다” 아는 만큼 보인다든 누군가의 말처럼,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들로 모였던 공통점이었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외국인에 의해 수집되어진 전국 각지의 유물들이 국립박물관의 시작이었고 그 후 역사의 굴곡을 지나면서 지금의 국립박물관이 자리잡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교육과정은 시작되었다. 비록 일주일에 한번이었지만 우리는 열심히 국립박물관의 유물들을 공부하였다. 석상관이 있는 구관과 신관1층부터 4층까지



의 유물들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발표하면서 인도네시아 역사가 가진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이전엔 예사롭게 보아 넘겼던 유물들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니 그 의미가 마음에 남기 시작했다. 선사시대부터 이어진 긴 역사속에서 토착신앙,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등이 그 어느 곳보다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를 가지게 된 나라. 국립박물관 유물공부 외에도 따만 미니 공원에서의 현장 수업, 강사님 초빙해서 들었던 바벳 강연, 와양과 가믈란 강의, 인도네시아 역사 강의 등도 무척이나 흥미진진했던 시간들이었다.

매주 5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외우며,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그 누구 한명 낙오자 없이 주어진 과제를 너무나 멋지게 발표하며 서로가 힘이 되고 자극이 되었던 교육생 6기 동기들. “인도네시





아 국립박물관 한국어 해설사” 라는 목적지를 위해 여정을 같이 하며, 지난 석달동안 수고 많았다. 뭐가 된지 낯설기만 하던 유물들이 이젠 익숙해져 유물 해설도 자연스러워졌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복잡하기만 했던 고대 왕조들과 왕국들의 이름들도 국사 교과서의 어느 이름들처럼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는 한국에서 친척이 오거나 지인이 오면,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자신있게 설명도 가능해진 것이다. 힘들지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주 화요일을 기다리며 지냈던 시간들이 가져다 준 좋은 선물인 것이다. 6기 후배 교육생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설명해 주시려 애쓰시며 따만 미니 박물관에서 열정적인 강의를 해 주시고 늘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수진

선생님, 매주 맛난 간식과 함께 알찬 교육 일정으로 후배들 챙기느라 수고하신 헤리티지 한국어 섹션 선배님들 모두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헤리티지 한국어 모임이 무언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용기내어 함께 하시기를 강추합니다., 헤리티지 멤버가 되고 공부를 한 지난 석달이 지금껏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가장 잘 한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번에 6기 박물관 교육을 수료한 분들은 강승희, 김연희, 김지영, 김혜선, 나진희, 박기정, 심숙형, 양범은, 오은정, 유세라, 이수연, 이양명, 이정아, 허묘녀, 정다운 총 15명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한국어 정기 해설 안내

- 장소 : 국립박물관 (티켓 데스크 앞, 구관 로비)
- 날짜 : 2020년 매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 시간 : 오전 9시 30분 ~ 11시 전후

- 대상 : 박물관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무료 해설)
- 선착순 : 20명

■ 장소: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National Museum)
Jl. Medan Merdeka Barat No.12, Gambir,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110 (021) 3868172



- 해설 진행 : 박물관 도슨트 (전문 해설사)
- 주관 :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 섹션 (IHS)
- 박물관 입장료
 - 끼따스 소지자 (거주자) : 1인당 Rp5.000
 - 일반 (방문객) : 1인당 Rp10.000
- * 본 공지사항의 댓글로 일행의 인원수와 함께 참여 신청해 주세요.
- * 백팩 (배낭) 은 박물관 내 반입이 금지되니 구관 로비 데스크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 (※ 귀중품은 박물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개인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 ‘청소년 봉사자’ 모집
- ◆ 도슨트가 해설하는 동안 안내 및 진행을 도와 줄 봉사 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 ◆ 인원 : 선착순 3명 (댓글에 인원수 기재 필수)
- ◆ 대상 : 중, 고등학교 재학생인 학생 봉사활동 확인서 (4시간) 발급

외식인의 날



지난 12월 3일 에머랄다 CC에서 재인도네시아 외식업협회의(회장 전성현)에서는 제7회 외식인의 날을 개최하였다.

2019년도부터 외식인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회원사와 협력사 45 여곳이 참석하여 올 한해의 사업 결과 보고와 내년을 준비하는 풍성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외식업 협의회 전성현 회장은 “앞으로 꾸준히 한식을 알리는 단체로 성장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고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한인회 박재한 회장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식을 알리고 한인사회 발전에 함께 기여해 주어 고맙다. 외식인의 날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 고 축사를 마쳤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KONI) 배웅식 한국국제특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임영석 임무관, 한국문화원 천영평 원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외식업협회의는 초대 정재익 회장, 2대 전성현 회장을 거치면서 약 50여개 회원사 그리고 올 해 원화 약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식을 알리는 데 공헌을 하였다.

특히 이번년도에는 8월 17일 인도네시아 광복절에 KONI와 함께 유소년 축구대회를 지원하였고 9월 2일부터는 5박6일동안 대사관과 함께 “Teko Nang Jawa - 지방속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정재익 명예회장, 최주혁 수석부회장, 전명현 수석부회장은 오는 12월 말 배추 100포기 김장체험과 나눔 행사 그리고 한식 대표이미지 공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한 출판기념회 및 북토크

- 인도네시아 제 1의 출판사 그라메디아에서 발간
-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시>로만 묶여진 최초의 번역시집

출판기념회 (주최: 그라메디아 출판사, 협력: 한인니문화연구원, 19.11.29 15:00—17:30)



최준 시인의 인도네시아어 번역 시집 『야자수 성자』 출판기념회가 11월 29일(금) 오후 3시에 자카르타 암바라호텔 1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한국 시인이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시들만 61편으로 묶여진 최초의 번역시집은 2000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인도네시아에 체류했던 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쓴 시집 『빨라부안 라뚜 해안의 고양이』 (2009)를 번역한 것이다.

외국을 소개로 쓰여진 대다수의 시들이 여행시의 성격을 띄고 있는 데 반해 이 시집은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그 습속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행사는 인도네시아의 가수겸 작곡가가 시인의 시 <오늘만 둥근 달>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무대 전면에는 시인의 시를 형상화한 인도네시아 화가의 그림 다섯 점을 전시했다. 시집을 발행하고 출판기념회를 기획, 주최한 그라메디아 출판사의 편집책임자인 찬드라는 개회사에서 “시가 없는 사회는 존재 자체가 없다”면서 “시집 『야자수 성자』는 외국 시인이 바라본 인도네시아의 현재를 돌아보게 한다.” 고 시집의 의미를 언급했다.

출판기념회와 책 출간을 협력한 한인니문화원장 사공경 시인은 인도네시아어로 축사를 해 인도네시아인들의 박수를 받았다.

“생존해 있는 시인 최초의 인도네시아 대상 번역시집 발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교류의 소중한

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면서 “교민들의 긍지를 높여 주는 것은 물론 이곳 한국교민들의 문화사업을 주도하는 한인니문화연구원의 역할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시점에 와 있다.” 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최준 시인은 수평적 문화에 대한 의의를 강조하면서 “이번 번역 시집의 발간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마음의 빔을 다소나마 깊은 듯한 마음” 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반등에서 온 신영덕교수, 이전순교수 등 20여명의 한국인을 포함한 100여명의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석한 출판기념회 행사는 웃음과 감동으로 어우러진 시간으로 이어졌다. 번역자인 반등에 소재한 교육대학교(UPI) 넨텐릴리스교수와 최준 시인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에서는 시와 문학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시인의 시집에 대한 넨텐 교수의 학술적인 분석과 시인의 철학이 담긴 말들은 진지함과 즐거움 사이에서 감성의 물결을 이루었다.

참고로 최준 시인은 2001년 <인도네시아 한국 문인협회>창립한 3명 중 한 사람으로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인이 주최가 되어 2001년, 2002년 400여명이 참석한 청소년 백일장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1991년 발간한 시집 『개』는 문창과 학생들의 교재로 사용하기도 했다.

(한인니문화연구원 제공)




우리동네 숨씨왕



한예성(ACS Jakarta, G3)

“저는 비행기가 너무 좋아요. 제 꿈은 비행기 디자이너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동안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차요. 엄마 아빠가 보는 한인 뉴스에 비행기처럼 빠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담아주세요~”

 한.이니 문화연구원 www.ikcs.kr

제67회 열린강좌

한.중.일 도자기 전쟁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일시: 2020년 1월 18일(토) 10:00-12:00

장소: 한인문화연구원

- Korea Center Building Jl. Gatot Subroto Kav 58

강사: 권영주 고전문학박사

- YK 교육 개발원 원장

- 부산초량왜관 연구회 학술이사

- 2019 신지식인으로 선정 (역사.문학전담해설)

- 현 방통대 고전문학 강의, 다수의 인문학 강의 진행

강의 내용

- 임진왜란 때 끌려 간 최첨단 기술자 조선도공이 ‘히라

도’에 정착한 후 어떤 길을 걸었을까?

-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은 쇄국의 길을 갔고, 유일한

해외 무역창구를 만들었으나 그 결과는 엄청난.

대표적인 무역상품 도자기를 중심으로 무역격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 조선도공이 구워 낸 도자기를 인도네시아 동인도주식 회사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해 떼돈을 벌어들인 네덜란드와 일본. 그후 일본은 그 자본을 바탕으로 근대화(명치유신)의 길을 갈 수 있었는데...

- 일본인들의 네덜란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다. 반면 동인도주식 회사의 주무대였던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식은? 또한 현지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신청: 밴드댓글 <https://band.us/@ikcs>

- 0838-7018-8118 / 0838-7834-7811 (id:ikcskr)

회비: Rp. 100,000 (비회원: Rp. 150,000)

제 69 회 한국어능력시험 공고문

■ 실시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2020년 1월 6일(월) ~ 1월 17일(금)(08:00~15:00)
- 원서 접수 장소

지역	원서 접수 및 문의처	연락처
JAKARTA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	021-844-4958
YOGYAKARTA	Universitas Gadjah Mada(UGM)	027-451-3096

- 원서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응시 수수료: IDR 200,000(TOPIK I), IDR 300,000(TOPIK II)
 - 환불 가능 기간 : 원서 접수 기간 이후 환불 불가
- 원서 접수 시 준비물 : 증명사진 3매(3cm×4cm), 신분증(한국인은 여권) 사본 1부, 응시 수수료
- 성적 발표: 2020년 5월 21일
 - 성적증명서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무료 출력
 - 2019년도부터 시험 시행기관에서 종이에 인쇄된 개인별 성적표를 배부하지 않음

■ 시험 시행

- 시험 일자: 2020년 4월 12일(일)
- 시험 장소: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족자카르타 UGM 대학교
- 시험 시간(현지 시간)

	교시	영역	입실	시작	종료	시험시간	비고
TOPIK I	1교시	듣기	09:10	09:40	11:20	100분	오전
		읽기					
TOPIK II	1교시	듣기	12:20	12:50	14:40	110분	오후
		쓰기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분	

■ 시험 안내

- 입실 시간: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 응시자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사진과 인적사항이 포함된 신분증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신분증) *수험표는 시험 당일 배부 (*반드시 응시료 영수증 지참)
- 응시자 유의 사항
 - 듣기/읽기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양면사인펜(시험장에서 배부)으로 작성
 - 쓰기 답안은 감독관이 배부한 양면사인펜의 얇은 부분으로 작성
 -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 전에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은 유인물 참조
 - 시험 수준별(TOPIK I, II) 지원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시험 시행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전화 021-844-4958)으로 문의 바랍니다.

박민제(JIKS 9학년, 열린 한글학교) 학생 ‘제6회 아시아 청소년 꿈 발표 제전’ 3등 수상

- 베트남에서도 통한 인도네시아 열린 한글학교의 위력

나의 꿈 국제재단(이사장 손창현)과 아시아 한글학교 협의회(회장 조성일)가 주최한 ‘제6회 아시아 청소년 꿈 발표 제전’이 2019년 10월 10일 베트남 호치민 FIRST HOTEL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아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심어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된다. 우승자에게는 나의 꿈 국제재단이 수여하는 장학금이 수여되며 미국 본부에서 개최되는 갈라(GALA)의 초대권도 주어진다. 올해는 아시아 각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열다섯 명의 학생들이 본선에 참가했다. 인도네시아 열린 한글학교 9학년 박민제 학생이 ‘나는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당당하게 발표하며 3등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대회 상금 외에 재단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다.



박민제 학생은 “저의 꿈을 확실하게 다지게 되었어요. 제 꿈에 한 발자국 다가선 기분이랄까요? 어떻게 하면 제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ACG
School Jakarta
Educate - Create - Innovate

유치부 | 초등부 | 중고등부

Open Day

2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 12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주시요.

(+62) 21 2978 0200 | acgjkt@acgedu.com | jakarta.acgedu.com

Jl Warung Jati Barat (Taman Margasatwa) no 19, Jati Padang, Pasar Minggu,
South Jakarta 12540



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ducation
CAMBRIDGE INTERNATIONAL CENTRE

Member of **inspired**



INTERVIEW
DI JALAN



블루버드 기사 Bpk Kiswanto (50세)

2019. 12

나는 중부자와 뻘말랑 에서 15살때 자카르타로 이주했는데 닥치는 대로 일하며 정신없이 살았네요. 베짜와 메트로 버스 기사 그리고 짐사람과 작은 와룽도 하다 때려 치우고 자가용 기사로 3년 뒀 후 6년 전 블루버드로 정착했는데 쉰~이제 여기는 일 할만해요.

가족은 부인과 아들만 5명인데 큰아들이 해양고 졸업하고 6개월전부터 한국배를타고있어요. 자주 연락 안하던데 잘 있겠지요? 지난달 처음으로 6백만루피아를 보내왔는데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지 ㅎㅎ

내 월 수입이요?

월 고정금 2백5십만에 미터기대로 사납하고 월말에 대략 3백만 정도 수수료 받습니다. 근무는 3일 일하고 하루 쉽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출동해서 밤 12시까지 일합니다. 피곤하긴해도 시내에 약 60군데 있는 블루버드 쉼터에서 쉬기도 하면서 쉬엄쉬엄 일하면 견딜만 합니다.

소망이요?

글쎄요~ 우리 막내가 9살인데그 녀석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일하면 좋겠어요. 블루버드 정년이 60살이니까 그때면 막내가 19살이 되겠네요.

한국분이지요?

우리 큰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워낙 착하고 성실해서 일 잘 할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편집국-

2019 임원산조금 납부명단

번호	성명 및 직책	회사명	금액		비고
			루피아	달러	
1	박재한 회장	PT. BUSANA PRIMA GLOBAL		20,000	
2	강덕재 명예고문	PT. LEMBU SWANA PERKASA		5,000	
3	김우재 명예고문	PT. KOIN BUMI	70,500,000		
4	신기엽 명예고문	PT. HANINDO EXPRESS UTAMA JAYA	70,500,000		
5	양영연 명예고문	PT. TAEWON INDONESIA	70,500,000		
6	김우진 고문	PT. SAMINDO ELECTRONICS		5,000	
7	김주철 고문	PT. STAR CAMTEX		5,000	
8	김준규 고문	PT. CIPTA ORION METAL	70,500,000		
9	신규태 고문	PT. INDO SUNG IL JAYA		5,000	
10	이진수 고문	PT. SUNGBO JAYA	70,500,000		
11	이호덕 고문	PT. ROYAL SUMATRA VICTOR JAYA RAYA	70,500,000		
12	최덕열 고문	PT. SHINTA WOO SUNG		5,000	
13	김종현 수석부회장	PT. KOIN BUMI	141,000,000		
14	김희년 수석부회장	PT. AITI INVESTMENT	141,000,000		
15	손한평 수석부회장	PT. DONG SAN HOLDING	141,000,000		
16	채영애 수석부회장	한인회 여성분과	141,000,000		
17	강병찬 부회장	PT. GLOBAL INDOREKSA ASIA	70,500,000		
18	김석 부회장	PT. TAESENGINDO ABADI UTAMA	70,000,000		
19	김육찬 부회장	PT. NISSI GROUP	70,500,000		
20	박성대 부회장	PT. HANJIN INDONESIA JAYA	70,500,000		
21	박성호 부회장	PT. BANK KEB HANA INDONESIA	70,500,000		
22	승범수 부회장	PT. KORINDO GROUP		5,000	
23	이광옥 부회장	PT. YUNI INTERNATIONAL	70,500,000		
24	이정휴 부회장	PT. GEE SAN INDONESIA	70,400,000		
25	이종남 부회장	PT. SINYOUNG ABADI	70,500,000		
26	정용완 부회장	PT. HUNG A INDONESIA	70,400,000		
27	최정훈 부회장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70,500,000		
28	하재수 부회장	PT. ROYAL PUSPITA		5,000	
29	구종율 자문위원장	PT. JASINDO DUTA SEGARA	28,000,000		
30	강희중 자문위원	PT. SUNG TECHNOLOGY		1,000	
31	김문환 자문위원	PT. KASINDO GLOBAL UTAMA	14,000,000		
32	김영만 자문위원	PT. BATAVIA CHEMTEK	14,000,000		
33	김영록 자문위원	PT. GAYA INDAH KHARISMA	14,000,000		
34	김영주 자문위원	PT. DEWA CITRA SEJATI	14,000,000		
35	김태화 자문위원	PT. EEN STEEL INDONESIA		1,000	
36	김희익 자문위원	PT. ESP INDONESIA	14,000,000		
37	배응식 자문위원	PT. KORSIA BOAN PERKASA		1,000	
38	사공경 자문위원	한인니문화연구원	14,000,000		
39	석웅치 자문위원	PT. DAYUP INDO	14,000,000		
40	엄정호 자문위원	PT. ING INTERNATIONAL	14,000,000		
41	오세명 자문위원	PT. SUNGLIM CHEMICAL	14,000,000		
42	이승민 자문위원	YSM & PARTNERS	14,000,000		
43	이종현 자문위원	PT. LEO KORINSIA	14,000,000		

44	이진호 자문위원	PT. JIN YOUNG	14,000,000		
45	이현상 자문위원	PT. ROYAL KORINDAH	14,000,000		
46	조규철 자문위원	PT. DONG JUNG INDONESIA		1,000	
47	채만용 자문위원	PT. CITRA BINA MAJU JAYA		2,000	2019 ~ 2020
48	최정남 자문위원	PT. GLOBAL FIBERINDO	14,000,000		
49	하연수 자문위원	PT. SEOLIN NIAGATAMA	14,000,000		
50	현상범 자문위원	PT. INAMEN JAYA	14,000,000		
51	강재영 이사	LSW & PARTNERS	14,000,000		
52	강형구 이사	PT. MERITZ KORINDO INSURANCE	14,000,000		
53	권희정 이사	PT. SAMICK INDONESIA	14,000,000		
54	길병완 이사	PT. DAEYOUNG DUNIA SUBUR	14,030,000		
55	김경곤 이사	PT. SUKWANG INDONESIA	14,000,000		
56	김경애 이사	한인회 여성분과	14,000,000		
57	김경준 이사	PT. SINAR KENCANA ABADI INDONESIA	14,000,000		
58	김문수 이사	PT. QUTY KARUNIA	14,000,000		
59	김미희 이사	한인회 여성분과	14,000,000		
60	김민규 이사	PT. WOORI CONSULTING & WOORI TOUR	14,183,000		
61	김삼두 이사	PT. CIPTA KREASI NADA		1,000	
62	김서겸 이사	PT. ACCENTUATES	14,183,000		
63	김송정 이사	PT. UNICON INDO MESIN	14,000,000		
64	김영섭 이사	PT. INDIGO MEDICAL	14,000,000		
65	김영율 이사	PT. SUNG CHANG INDONESIA	14,183,000		
66	김옥준 이사	PT. BSI GROUP	14,000,000		
67	김인기 이사	PT. INDOCORE PERKASA	14,000,000		
68	김일태 이사	PT. OROM	14,000,000		
69	김재윤 이사	PT. KUNYOUNG INDONESIA JAYA	14,000,000		
70	김종성 이사	LAW FIRM INDOYANG & PARTNERS	14,000,000		
71	김형근 이사	PT. GAYA INDAH KHARISMA	14,000,000		
72	김호권 이사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4,000,000		
73	김화룡 이사	PT. BANGUN MAJU LESTARI	14,000,000		
74	김희중 이사	JKI CONSULTING	14,000,000		
75	노예범 이사	PT. SAM PUTRA INTI	14,000,000		
76	노태진 이사	PT. SILLA ENGINEERING INDONESIA	14,000,000		
77	박기현 이사	KOREAN AIR	14,000,000		
78	박주상 이사	PT. TOU RUBBER INDONESIA	14,000,000		
79	방진학 이사	PT. HANSUNG INDOTAMA WORLD	14,000,000		
80	백인현 이사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4,000,000		
81	서영률 이사	PT. PRATAMA ABADI INDUSTRI		1,000	
82	서준형 이사	PT. TACHYON INDO	27,900,000		2017 ~ 2018
83	성예식 이사	PT. F1-LOGIX	14,183,000		
84	송영한 이사	PT. KOFORM INDONESIA		1,000	
85	송판원 이사	PT. KORYE POLIMER	14,000,000		
86	신호진 이사	PT. HANINDO EXPRESS UTAMA JAYA	14,000,000		
87	안선근 이사	U.I.N UNIVERSITY	14,000,000		
88	안창섭 이사	PT. PETRASAKTI MADYATAMA	14,183,000		

89	양태화 이사	PT. BOSUNG INDONESIA	14,000,000		
90	유용선 이사	PT. DAE HWA INDONESIA	14,000,000		
91	유주완 이사	PT. FEEL BUY INDONESIA	14,000,000		
92	유진상 이사	PT. DAE BAEK	14,000,000		
93	윤조현 이사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14,000,000		
94	이강현 이사	PT.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	14,183,000		
95	이기영 이사	PT. FITI INDONESIA	14,000,000		
96	이명균 이사	PT. HIJAU ELEKTRONIKA INDONESIA	14,000,000		
97	이상일 이사	PT. UNGARAN INDAH BUSANA	14,000,000		
98	이서연 이사	PT. SEYANG INDONESIA	14,000,000		
99	이세호 이사	PT. GORI GLOBAL INDONESIA	14,183,000		
100	이옥찬 이사	PT. KORINA SEMARANG	14,000,000		
101	이완주 이사	PT. PERTIWI INDO MAS	14,000,000		
102	이정호 이사	PT. HEONZ ROYAL JAYA	14,000,000		
103	이주한 이사	PT. MEDISON JAYA RAYA	14,000,000		
104	이지완 이사	PT. JIN YOUNG	14,000,000		
105	이지현 이사	PT. ZIMMOAH MARINE TRANS	14,183,000		
106	이철훈 이사	PT. INDO BOX UTAMA JAYA	14,000,000		
107	이한주 이사	PT. SAJI SEGAR LESTARI	28,000,000		2018 ~ 2019
108	이희경 이사	PT. PRIME FREIGHT INDONESIA	14,049,000		
109	임동진 이사	PT. INKO SINAR MEDIA	14,000,000		
110	임성필 이사	PT. LSP INDONESIA	14,000,000		
111	임일택 이사	PT. ACE MOLD TECH	14,000,000		
112	임진섭 이사	PT. ALIM INDO	14,000,000		
113	장영관 이사	PT. SURYA MOLD TECH	14,000,000		
114	장윤하 이사	PT. HARINDO		1,000	
115	전용무 이사	PT. TRI WAY ASTA	14,000,000		
116	정방울 이사	한인회 여성분과	14,000,000		
117	정제의 이사	PT. SINERGI SUKSES INDONESIA	14,000,000		
118	조용재 이사	PT. FOOD KOREA INDONESIA	14,183,000		
119	차상현 이사	PT. ASIANA AIRLINES INC	14,000,000		
120	채인숙 이사	한인회 여성분과	14,000,000		
121	최원혁 이사	PT. HILON FELT	14,183,000		
122	표기훈 이사	PT. HIT	14,183,000		
123	허진경 이사	한인회 여성분과		1,000	
124	홍기호 이사	PT. AURORA INT'L CO.	14,000,000		
125	홍중서 이사	PT. ARION TECH INDONESIA	14,183,000		
126	황의상 이사	PT. SEPULUH SUMBER ANUGERAH	14,183,000		

한인뉴스 특별우원금

번호	후원사	성명 및 직위	금액 (IDR)
1	PT. CIPTA ORION METAL	김준규 고문	50,000,000

2019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Rp.300,000)

※ 기준 : 납입일순

번호	성명
1	임경미
2	김영실
3	김주형
4	길병완
5	최석일
6	이원만
7	박화선
8	최성현
9	전정우
10	정민수
11	김영울
12	조용재
13	김창근
14	김대근
15	서미숙
16	하연수
17	최수미
18	이국청
19	최혜진
20	최인실
21	홍석영
22	이은진
23	배응식
24	임진섭
25	승진아
26	장윤하
27	석웅치
28	송재선
29	김일태
30	김재윤
31	서준형
32	류근수
33	이선형
34	오은선
35	이한주
36	김애순
37	이정휴
38	정용완
39	이상일
40	김영욱
41	김준규
42	강덕재
43	이정호

44	구종울
45	김경근
46	김영만
47	승은호
48	서영률
49	이현상
50	박성대
51	양태화
52	이광욱
53	김희년
54	최정남
55	이옥찬
56	김호권
57	구분식
58	강희중
59	임진섭
60	임동진
61	김옥준
62	채만용
63	하재수
64	이명균
65	황윤홍
66	노태진
67	유진상
68	김화룡
69	김영주
70	이종현
71	이진수
72	장영관
73	이정규
74	정무웅
75	김희중
76	김태화
77	하연수
78	김문환
79	김육찬
80	김인기
81	최정훈
82	유용선
83	박재한
84	김희익
85	김형근
86	정방울
87	오세명

88	사공경
89	배석구
90	황성희
91	박주상
92	승범수
93	양영연
94	김경애
95	박인철
96	홍사빈
97	정현일
98	김병근
99	조형우
100	강재영
101	김우진
102	이기영
103	이종남
104	김영섭
105	김영선
106	임일택
107	정순
108	윤조현
109	박정호
110	이은영
111	김희순
112	조우희
113	차상현
114	이영미
115	이수진
116	정사무엘
117	김경준
118	유주완
119	조영완
120	정재윤
121	신규태
122	신기엽
123	노예범
124	김문수
125	강형구
126	권영선
127	이서연
128	이승민
129	태용호
130	황의상
131	백인현

132	권희정
133	홍종서
134	안창섭
135	성예식
136	김서겸
137	이강현
138	조용재
139	이완주
140	엄정호
141	채인숙
142	조규철
143	서정식
144	이기자
145	유한숙
146	허진경
147	방진학
148	이지완
149	정제의
150	신호진
151	이진호
152	송판원
153	김미희
154	김지연
155	이승학
156	전용무
157	이한주
158	이철훈
159	백현채
160	배상경
161	김송정
162	임성필
163	이호덕
164	안선근
165	홍기호
166	손한평
167	김종현
168	김우재
169	채영애
170	이주한
171	조영완
172	채만용
173	현상범
174	김종성
175	박성호

ICHTHUS SCHOOL
PRIMARY | SECONDARY | PRE - UNIVERSITY

ACCREDITED
WASC

OPEN HOUSE
Ichthus west campus
7 Feb 2020
Ichthus south campus
8 Feb 2020
www.ichthusschool.com

Scan for Inquiry

West Campus
T: +6221 581 2228

South Campus
T: +6221 7590 8850

Ichthus Schools
Ichthus School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 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 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 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찌까랑)	546 0234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 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 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MATAARI
TOUR & TRAVEL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 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 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 학교 (SIS) (끌라빠가딩)	7591 4414 460 8888
영국국제 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 학교 (JIS)	750 3640
북국제 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 학교 (AIS)	782 1141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끌라빠가딩)	750 0739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세무상담은 텍스트로

세무사/AFPK자격인증자 **이희영**

대한민국세무관련조력/비거주자,
거주자판단자문 등
대한민국세무상담 환영

• 주요업무 •

세무조사전문
조세불복전문
기장신고대리
양도상속증여
세무컨설팅

• 주요경력 (국세청 17년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근무
강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조사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근무

(07807)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747타워 602호(마곡역
6번 출구)
T +82-2-2662-7476
F +82-2-2664-7473
M +82-10-6599-7476
E taxlow7476@naver.com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십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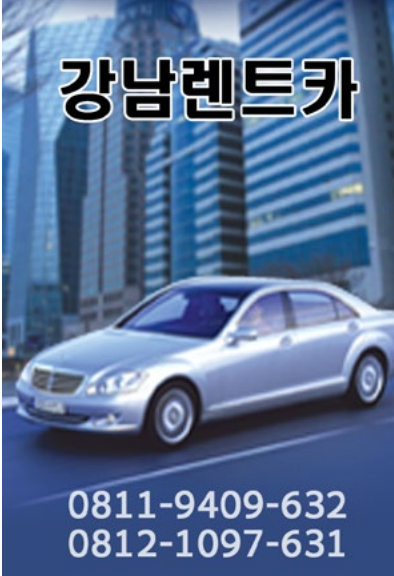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당)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58	7650 6040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visa.oromchris@gmail.com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URI TOUR & TRAVEL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talin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가슴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l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미와 함께하면 증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근)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술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킴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	-------------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포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차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교민여러분과 25년을 함께 해 온
가구 인테리어 전문회사



로만인테리어

사무실/아파트/주택/매장/업소
공장/기숙사
가구, 키친세트, 인테리어
각종 리노베이션 상담

Showroom/Office:
Jl. RS Fatmawati No. 21A, Cipete Jakarta Selatan
Tel: (021) 766 2519 한국인직통 0811-847-699
카톡 ID: limbs521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군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어떤 모양을 통해
목적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 아닐까요?
디자인이라면 뭐든지 해결해드립니다!

PT.EOK ECO INDONESIA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경관조명
간판**

- 디자인 / 열계 / 제작 / 시공 -
Tel. 021-7919-2426
M. 0852-8511-3888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감달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짜까랑) (땅그랑)	2909	3454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아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너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짜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람)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9593111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하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짜카람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짜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름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보찌까랑)	0813	1415 7581
---------------	------	-----------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보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쉴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dailyindonesia.co.kr

레일링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KANA 가나 RESTOLOUNGE

가나의 Special MENU

가나의 복요리, 가나의 Delivery Menu, 가나의 케터링 서비스

복요리 전문, 도시락 전문, 케터링 전문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1 Jakarta
Phone 2520077, 5710909
(KIM MI YOUNG 0811 918 132)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세드라아트스쿨(리브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98 6112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너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DREMLAND TOUR 745 1961
 KOURUS TOUR 744 72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L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ANUR) 918 1888
 부가 805 1212
 한일관 727 250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BALI TEGEHE AGUNG 298 643
 SUN JEWELLERY 761 537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2019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박형동 회장/한바패 회장
 채영애 감사
 사공경 고문
 강희중 자문
 신돈철 자문
 이수진 수석 부회장
 허민경 사무국장/스트링 오케스트라
 정방울 사무차장/한인무용단
 김경애 전시 수석부회장/한지공예
 김혜정 공연 수석부회장/JKCC 어린
 이 합창단

정재익 전시부회장/서협
 이은수 전시부회장/미협
 김일순 공연부회장/한바패
 박의태 공연부회장/색소폰
 박정욱 공연부회장/극동방송 합창단
 박준희 공연부회장/아버지 앙상블

<17개 소속 단체장>

극동방송 합창단 단장 : 신정일 0811 924 328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서예협회장 : 송판원 0816 1840 762
 스트링오케스트라단장 : 허민경 0812 1316 2064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아버지앙상블단장 : 김종규 0815 1059 8392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김영희 0815 181 3102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채영애 0816 745 384
 한국무용단 단장 : 정방울 0811 1636 21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한지공예 단장 : 김경애 0815 1941 1756

40년

무궁화가 인도네시아에서 개척해 온 한식 세계화의 시간입니다.

절벽 정상에 올라 부리와 발톱을 갈고 환골탈태하는 솔개처럼
변화와 혁신으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교민 고객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한결같은 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20년 당사 지점 현황 -

Senopati, Tangerang, Cikarang
Kelapa Gading, Darmawangsa, Pondok Indah
Surabaya, Bandung, Semarang, Jogjakarta, Cilegon
and our 4,000 Local Retail Stores in Indonesia

PT. KOIN BUMI

General Trade - Supermarket Franchising - Food and Beverage Supplier and Distributor - Export - Import

MGH Building, Jln. Senayan No.43, Rawa Barat,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DKI Jakarta, Indonesia



MU GUNG HWA
무 궁 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5th

One Step Ahead



KORINDO

그룹 창립 50주년

코린도는 그 동안 초록빛 내일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면서 보았던 지구 위의 모든 숨과 땀, 그리고 미소.....

그 모든 것들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녹색입니다
그 길에 한 발 앞서 미리 살피는 코린도,
한 발 앞서 배려하는 코린도가 되겠습니다

리종은세상의
사랑

1969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19

